

202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기반 구축사업

환경대학원 포용적 계획·정책 연구실

# 통일을 대비한 북한의 주거환경 및 지역공동체 조사

## North Korea's Residential Environment and Local Community

결과보고서

박인권, 최봄이, 최고운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he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SNU ENVIRONMENTAL PLANNING INSTITUTE

Inclusive Planning & Policy Lab  
포용적 계획·정책 연구실



2021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재원으로  
통일기반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 목 차

<b>제1장 서론</b>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b>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고찰</b> .....	9
1.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념과 원리 .....	11
2.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	15
<b>제3장 북한의 주택소구역과 지역공동체</b> .....	19
1. 북한 주택소구역의 특성 .....	21
2. 인민반과 주민활동 .....	27
3. 북한 지역공동체의 특성 .....	30
<b>제4장 북한 주택소구역의 주거환경 및 주민활동의 최근 변화</b> .....	33
1.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의 개요 .....	35
2. 봉사시설에서의 주민활동 .....	38
3. 봉사시설 외(집, 현관, 마당, 장마당)에서의 주민활동 .....	48
<b>제5장 북한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형성요인</b> .....	53
1. 북한 지역공동체의 의미 .....	55
2. 북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요인 .....	55
3. 기존 연구와의 비교 .....	62
<b>제6장 결론</b> .....	65

■ 참고문헌 .....	71
■ 부 록 .....	77
1. 설문지 .....	79
2. 심층면담 질문지 .....	94

# 표 목 차

〈표 1-1〉 지역별 거주 현황 .....	6
〈표 1-2〉 상위 10대 시군구(2016년 12월말 기준) .....	7
〈표 2-1〉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 원칙 .....	11
〈표 2-2〉 단계식 문화생활 서비스 체계 .....	13
〈표 2-3〉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	16
〈표 3-1〉 소구역의 생활단위체계 .....	21
〈표 3-2〉 인민반의 역할 및 주요업무 .....	28
〈표 4-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적사항 .....	35
〈표 4-2〉 설문조사 참여자의 북한 살림집의 일반적 사항 .....	36
〈표 4-3〉 심층면담 참여자의 인적사항 .....	37
〈표 4-4〉 봉사시설의 구성 .....	38
〈표 4-5〉 공동 가사시설의 존재 여부 .....	38
〈표 4-6〉 공동 생산시설의 존재 여부 .....	41
〈표 4-7〉 사상·교양시설의 존재 여부 .....	43
〈표 4-8〉 배급시설의 존재 여부 .....	45
〈표 4-9〉 상업·업무시설의 존재 여부 .....	47
〈표 4-10〉 이웃과의 대화나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했던 곳 .....	48
〈표 5-1〉 북한 지역공동체의 분석틀 .....	56
〈표 5-2〉 지역공동체의식 측정항목 .....	57
〈표 5-3〉 지역공동체의식 요인분석 결과 .....	58
〈표 5-4〉 요인분석에 따른 측정항목 분류 .....	58
〈표 5-5〉 지역공동체의식과 독립변인 .....	59
〈표 5-6〉 지역공동체의식과 인민반활동 .....	60
〈표 5-7〉 지역공동체의식 구성요소들과 독립변인 .....	62

# 그림 목 차

〈그림 1-1〉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및 자살 관련 기사 .....	3
〈그림 1-2〉 북한 이탈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온'에 게시한 포스터 및 게시글 .....	7
〈그림 2-1〉 모스크바의 주거지 계획 .....	12
〈그림 2-2〉 1920년대 전형적인 공장식 부엌 .....	14
〈그림 3-1〉 도시 생활단위 체계도 및 주택구역 구성 .....	21
〈그림 3-2〉 대타령 모범 주택 소구역 87호 배치도 .....	24
〈그림 3-3〉 남신의주 8호 구획의 생활단위 조직도 및 구획계획도 .....	26
〈그림 3-4〉 상원 2호 구획계획도 .....	26
〈그림 3-5〉 북한의 집단·조직생활과 인민반 .....	27
〈그림 5-1〉 북한 지역공동체 개념도 .....	55
〈그림 5-2〉 남북한 교제의 정도 .....	63
〈그림 6-1〉 사적(중간적) 활동·공간의 중요성 증대 .....	67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북한을 이탈하여 국내로 입국한 주민의 수는 2020년 3월 말 기준, 33,658명에 이르나<sup>1)</sup>, 이들 가운데는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재입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sup>2)</sup>, 국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살률은 일반 국민 자살률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탈북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도시 공간적 포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에서 이들이 거주했던 주거지와 그 속에서 이들이 형성했던 공동체 활동, 생활, 문화, 의식을 제대로 이해해야 함.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주거환경의 계획에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경제와 보건 분야에서 이루어졌고<sup>3)</sup>, 남한 사회 정착의 기본 토대가 되는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는 미미한 실정임.
-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이념이 북한의 도시계획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자 하는 보다 큰 스케일에서의 접근이 있었고<sup>4)</sup>, 북한 공동주택에 관한 연구<sup>5)</sup>는 주로 물리적 측면에만 집중하였음.

#### <그림 1-1>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 및 자살 관련 기사

<p><b>살기 고달픈 탈북민 '재입북의 유혹'... 9년간 28명 넘어갔다</b></p> <p>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재입북한 탈북민은 28명이다.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수치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이번에 누가 다시 북한에 갔다더라"는 소문이 심심찮게 퍼진다. 현재 정부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탈북민은 약 900명에 달한다.</p> <p>탈북민들은 한국에 온 초기 5년이 정착의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때를 놓치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이 5년간 '언어만 통하는 외국'인 한국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 삶을 꾸려 나가야 한다.</p>	<p><b>2020 국감, 북한 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자살'</b></p> <p>북한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10.1%)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p> <p>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갑)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자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자살율은 10.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국민 자살률 4.5%에 비해 2배 높은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p>
---	---

자료: 최지선, 2020.08.07. "살기 고달픈 탈북민 '재입북의 유혹' ... 9년간 28명 넘어갔다", 동아닷컴(좌); 길민권, 2020.10.07. "2020 국감, 북한 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자살'", 데일리시큐(우).

1) 통일부, 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2) 이제훈, 2020.07.27. "2015년 이후 탈북자 12명 북쪽으로 돌아가", 한겨레.  
 3) 김옥, 201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연구동향(2011~15년)",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p.71-82.  
 4) 김현수, 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동우, 2012.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 평양도시공간에 대한 또 다른 시각: 1953-2011」, 파주: 효형출판.  
 5) 김민아, 2018.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 연구의 목적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동생활을 사회생활의 기본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sup>6)</sup>, 이를 주택 및 단지계획에 적용하였기 때문에 거주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체 문화, 공동체 생활, 공동체 의식 등을 형성하게 됨.
-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집단적 삶’을 조직하기 위해 소련에서 공간적인 기초단위로 상정한 개념이 마이크로 디스트릭트(micro-district)로서<sup>7)</sup>, 이는 적정인구 규모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배치된 것을 특징으로 함.
- 북한의 경우, 소련의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개념을 현지화한 주택소구역을 계획하였으며<sup>8)</sup>,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에서의 공동생활은 사회생활의 근간이 되고 있는데, 주택소구역에는 밥공장, 가족식당, 전문식당 등의 공동취사·식사시설과 선전실, 신문도서열람실, 어머니교양실, 아동교양실 등의 사상·교양시설, 그리고 경공업장, 가내작업장 등의 공동 생산시설이 조직되어 있어<sup>9)</sup>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집단주의적 가치가 학습되고 장려됨.
- 주택소구역의 생활단위체계 중 이용반경이 가장 작은(100~150m) 초급봉사단위를 중심으로 조직된 인민반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있는 최말단 기층조직이며, 북한에 거주 등록된 모든 주민들은 지위와 계층,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인민반에 포함되므로 북한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괄적인 기초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sup>10)</sup>
- 주택소구역에서 인민반장을 중심으로 한 인민반원들은 생활총화와 사상학습, 마을과 거리 꾸리기, 유희자재 수집·수매와 가내작업반 활동, 국가건설동원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sup>11)</sup>, 공동체 문화, 공동체 생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유지함.
- 따라서 북한의 지역공동체는, 주택소구역(주민 5,000~10,000명)을 통해 주거지 인근에서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이전이 제한되며, 인민반(20~40가구)이라는 기초 사회집단을 통해 상호의존 및 감시의 관계를 형성하므로, 주택소구역과 인민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북한 주택소구역의 주택 및 근린환경 요소들과 인민반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공동체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한편으로는 북한 주

6) 김현수, 1993.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p.17-31.

7) 최병선,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계획: 이론과 실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1989-09-30, Vol.24(9), p.6-17.

8) 김민아, op. cit.

9)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193

10) 배영애, 2018.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12-31, Vol.10 (2), p.193-240.

11) 알렉사드르 제빈, 1994.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연구』, 제37권 제1호, p.141-159; 채경희, 2017. “북한 인민반의 조직,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제7권 제5호, p.809-819; 배영애, op. cit.

택소구역의 계획원리, 체계, 특성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주민 활동 및 생활을 조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지역공동체의식의 개념, 구성요소, 특징을 조사하여, 이들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고자 함.

- 특히, 주택소구역 내 주택 및 공동시설의 특성, 이용행태 등이 북한 주민의 독특한 공동체 활동 및 의식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구체적 연구 결과는 북한 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는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남북 교류 및 통일시대에, 남북의 사회통합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1) 연구의 대상

- 본 연구는 북한에서 평양, 혜산, 청진, 함흥과 같은 주요 도시의 도시지역(구역)의 아파트나 하모니카집에 거주했던 사람으로서, 2000년 1월 1일 이후에 북한을 이탈하여(당시 만 18세 이상), 현재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거주 중이거나, 설문장소로 수도권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음.
-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서울에 7,085명(22.69%), 경기도에 10,398명(33.31%), 인천에 2,960명(9.48%)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sup>12)</sup>

<표 1-1> 지역별 거주 현황(2020년 3월말 기준)

(단위: 명)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충남·세종
남	2,233	2,603	775	255	220	249	141	248	348
여	4,852	7,795	2,185	757	869	826	525	1,030	1,328
합계	7,085	10,398	2,960	1,012	1,089	1,075	666	1,278	1,676
%	22.69	33.31	9.48	3.24	3.49	3.44	2.13	4.09	5.37

지역	광주	강원	대전	전남	전북	울산	제주	계
남	132	199	129	149	123	130	73	8,007
여	456	610	488	460	417	367	248	23,213
합계	588	809	617	609	540	497	321	31,220
%	1.88	2.59	1.98	1.95	1.73	1.59	1.03	100.00

자료: 통일부, 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전국 17개 시도 북한이탈주민 거주분포를 분석하여 5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위 10대 시군구를 선별하면, 서울 3개 지역(양천구, 노원구, 강서구), 경기 6개 지역(화성시, 수원시, 평택시, 용인시, 김포시, 안산시), 인천 1개 지역(남동구)임.
- 특히, 인천 남동구는 구 단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북한 출신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그중 신규택지개발지구인 논현 1, 2동이 밀집 거주 지역인데, 남동구의 북한 출신 주민 1,380명 중 1,166명이 논현 1, 2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012년 4월 말 기준).<sup>13)</sup>

12) 통일부, op. cit.

13) 이수정, 2014.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17(2), p.85-126.

<표 1-2> 상위 10대 시군구(2016년 12월말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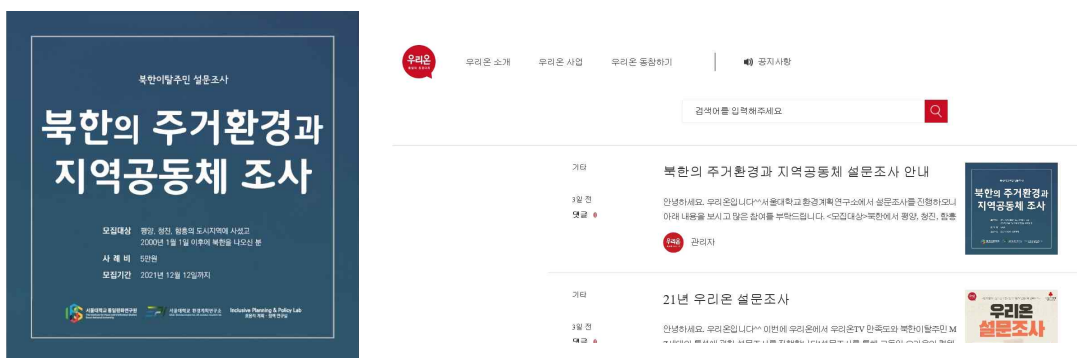
순위	시군구		남	여	계	비율(%)
1	인천	남동구	520	1,337	1,857	6.7
2	서울	양천구	407	745	1,152	4.1
3		노원구	357	763	1,120	4.0
4		강서구	350	645	995	3.6
5	경기	화성시	206	637	843	3.0
6		수원시	172	521	693	2.5
7		평택시	165	462	627	2.3
8		용인시	140	468	608	2.2
9		김포시	143	408	551	2.0
10		안산시	151	387	538	1.9
합계			2,611	6,373	8,984	32.3

자료: 남북하나재단, 2017. “북한이탈주민 시군구별 실태보고서: 10대 주요 거주지역편”

(2) 연구 대상의 모집 절차

- 서울 및 인천지역 하나센터에 공문을 통해 소수의 북한이탈주민을 소개받은 후, 이들 중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시작으로, 눈덩이 표집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며, 또한 북한 이탈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온’ (<https://www.woorion.net/>)에 모집문건을 게시하여, 총 100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음.

<그림 1-2> 북한 이탈주민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온’에 게시한 포스터 및 게시글



### (3) 연구의 범위

- 시간적 범위는 북한 정권에 의해 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한국전쟁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함.
- 공간적 범위는 도시계획 및 주택소구역 계획에 대한 자료가 대도시, 특히 평양시를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으므로 평양시 및 대도시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음.

## 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심층면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되었음.
- **문헌조사:** 북한 주택소구역의 계획 원리, 체계, 특성 조사를 위해서 「조선중앙연감」, 「주택소구역계획」, 「조선건축사」 등의 간행물 및 단행본과, 월간지 「조선건축」, 일간지 「로동신문」, 관련 논문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였음.
- **설문조사:** 앞서 언급한 연구 대상자 100명을 모집하여, 무응답이나 불성실한 응답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총 66문항으로써 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북한 거주 시 이웃 간 상호작용, 북한에서 거주했던 공동주택의 물리적 환경, 인민반 활동, 공동체 의식 등을 질의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통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의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북한 주택소구역의 주거환경요소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공동체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북한 주민의 공동체의식의 세부 구성요소의 식별을 위해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음.
- **심층면담:**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다양한 연령대 및 지역의 대상자 7명(파이럿 포함, 총 10명)을 선정 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심층적인 해석을 위해 설문 문항의 구조를 따라 개인적 특성, 북한 내 주거의 봉사시설 및 관련활동, 이웃과의 상호작용, 공동체의식으로 나누어 조사·분석하였음.



## 제2장. 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의 고찰





## 1.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념과 원리

### 1)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 원칙

- 소비에트 도시계획의 이념은 1935년과 1971년 두 차례에 걸친 모스크바종합계획(Central Plan of Moscow)과 1944년의 도시계획법(Code of Basic Principles in City Planning)에 잘 나타나 있음.
- 도시계획의 3대 목표는 도시규모의 성장억제, 자족적이고 균형있는 커뮤니티의 형성, 도농간 격차해소로 요약할 수 있는데<sup>14)</sup>, 도농간 격차해소는 1848년 공산당 선언에 명시된 이후로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적인 계획목표임.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이념인 사회적 계급구조의 타파를 통한 동질적인 노동자 사회의 건설이라는 명제가 공간적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임.
- 도시규모의 성장억제는 다른 두 가지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주의혁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는데, 대도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있어서 부적합하며 기반시설 조성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도시의 규모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sup>15)</sup>
- 1935년 모스크바 계획에 기초하여, James(1980), 주종원 외(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 원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이와 같은 주요 원칙들은 사회주의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쳐왔음.

<표 2-1>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일반적 원칙

James H. Bater(1980)	주종원 · 김현수(199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시규모의 제한</li> <li>2. 정부의 주택통제</li> <li>3. 계획적 주거지 개발</li> <li>4. 집단소비서비스시설의 공간적 균등배치</li> <li>5. 직주근접</li> <li>6. 엄격한 토지이용계획</li> <li>7. 합리적인 교통처리</li> <li>8. 충분한 녹지확보</li> <li>9. 중심지의 도시상징성</li> <li>10. 전국계획과의 통합유지</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이한 토지이용간의 분리: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업과 주거의 철저한 분리</li> <li>2. 도시공간의 계층구조: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의 기초단위로 마이크로디스트릭트(micro-district)설정</li> <li>3. 직주근접의 원칙과 공간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서비스시설의 균등배치</li> <li>4. 도심부는 이념적 학습의 장소로서 상업, 업무시설 대신 공공시설과 기념광장 등으로 구성</li> </ol>

자료: James H. Bater, 1980. The Soviet City, Sage, Beverly Hills. p. 27-30; 주종원·김현수, 1993.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p.17-31.

14) Paul White, 1980. Urban Planning in Britain and the Soviet Union, Town Planning Review, Vol. 51 No. 2, p. 216-217.

15) Gary Hausladen, 1984. “The Satellite City in Soviet Urban Housing”, Soviet Geography, Vol. 25, No. 4, p.243. 적정규모이론, 그러나 구소련의 대도시에서 이는 실패하였음. 이는 소련의 산업정책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 공업위주의 국가경제정책, 그리고 부문계획과 공간계획간의 부조화로 대도시 인구집중문제는 서구도시의 경우와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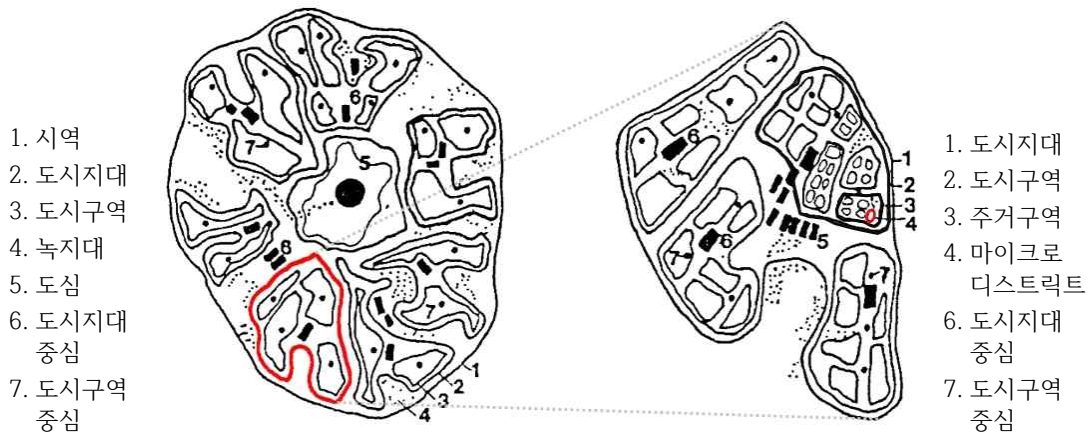
## 2) 사회주의 도시의 주거지 계획: 마이크로 디스트릭트(micro-district)의 일반적 원칙

-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동생활을 사회생활의 기본유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의 집단공동생활(communal life)을 조직하기 위한 공간적인 기초단위로 상정한 것이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개념임.

### (1) 도시 공간의 계층구조 형성

- 마이크로 디스트릭트의 규모는 30~50ha로서 10,000~12,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서비스시설의 반경은 약 150~200m임. 이것이 기초단위가 되어 몇 개의 마이크로 디스트릭트가 모여 주거구역(residential district, 인구 30,000~50,000명, 1,000~1,200m의 서비스반경), 도시구역(urban district, 인구 100,000~300,000명의 규모), 도시지대(urban zone, 인구 800,000~1,000,000명)를 이루는 계층구조를 형성함.<sup>16)</sup>

<그림 2-1> 모스크바의 주거지 계획



자료: 주종원·김현수, 1993.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p.17-31.

### (2) 집단 소비·서비스시설의 공간적 균등배치

-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내 서비스시설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두 일정한 접근성을 갖게 하여 동등한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단계식 문화생활 서비스 체계’라고 불리며 용도 및 방문 빈도에 따라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음.<sup>17)</sup>

16) 최병선,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계획: 이론과 실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문제』 1989-09-30, Vol.24 (9), p.6-17; James H. Bater, 1977. Soviet Town Planning: Theory and Practice in the 1970'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 p.177-207.

17) N. V. Baranov, 1969. Planning of Metropolitan Areas and New Towns, United Nations, p.214.

&lt;표 2-2&gt; 단계식 문화생활 서비스 체계

구분	내용
1단계	- 탁아소, 유치원, 학교, 소운동장, 생필품 가게, 식당 등 매일 이용하는 시설 - 각 주택들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되어 도보로 이용 가능하게 계획함. - 마이크로 디스트릭트 내부에 위치시켜서 300~400m정도의 이용 반경 안에서 인구 6,000~12,000명 정도가 같은 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음.
2단계	- 영화관, 종합진료소, 문화회관 등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시설 - 주택지의 중심지로서 도보로 접근 가능한 곳에 위치시키며 1,000~1,200m 정도의 좀 더 넓은 이용 반경을 갖도록 계획함. - 기본 단위인 마이크로 디스트릭트가 여러 개 모였을 때 생기는 레지덴셜 디스트릭트가 수용하는 인구인 25,000~45,000명 정도가 이것을 이용함.
3단계	- 행정청사 대형극장, 박물관, 쇼핑센터 등 - 전체 도시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들은 도시 중심에 위치시켰으며 대중교통에 의해 접근하도록 함.
4단계	- 도시 전체 인구를 위한 여가시설들은 도시 주변부에 위치시킴.

### (3) 일상공간의 공용화를 통한 ‘사회주의적 삶’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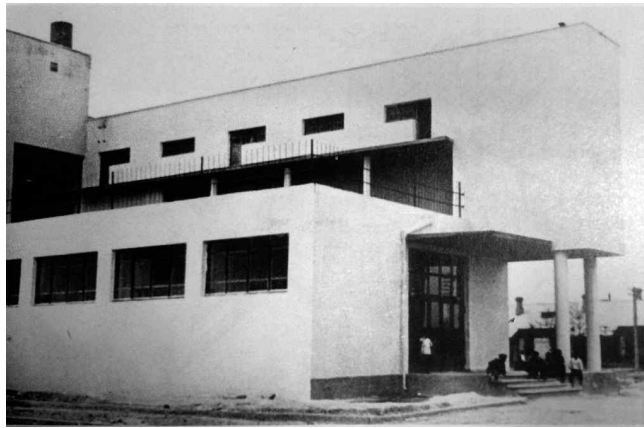
- 1920년대 소비에트 혁명세력들은 ‘사회주의적 삶의 방식’을 정의하는데 ‘소시민적인 삶’이라고 불리는 생활을 비판하는 입장에 기초하고 있음. 소시민적 삶이란 편협하고 개인주의적이며, 자신의 일 이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물질에만 관심이 있는 삶을 칭함.
- 반면에 혁명세력들이 제시한 ‘사회주의적 삶’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기초한 사회로서, 개방된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국가경영에 참여하고, 생산은 노동자들에 의해 운영되며, 전통적인 가족을 소멸시키고 공동체에 바탕을 둔 새로운 가족관계가 창출된 사회였음.
- 여기에서 새로운 가족관계는 사회주의 주택계획에 있어 ‘일상생활’ 담론과 함께 중요하게 논의되었으며, 주거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위한 건조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전통적인 가족의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었던 몇몇 기능들을 집단화할 수 있도록 계획됨.<sup>18)</sup>
- 대표적으로 취사 및 식사기능의 집단화는, 예를 들어 취사는 순번에 따라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진 팀에 의하여 준비되며, 식사는 모두 함께하는데, 단지 편의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고 영향을 주고받게 하려는, 즉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을 구현하려는 기본 목적이 바탕에 있었음. 이런 이유에서 몇몇 공동체에서는 항상 같은 식탁에 앉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기

18) Anatole Kopp저, 건축운동연구회 역, 1993. 「소비에트건축: 1923-1937」, 서울: 도서출판 발언, p.53.

도 했음.<sup>19)</sup>

- 공장식 부엌은 이러한 목적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작업장으로 배달하거나, 부엌과 결합된 구내 공공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음.<sup>20)</sup>

<그림 2-2> 1920년대 전형적인 공장식 부엌



자료: Anatole Kopp저, 건축운동연구회 역, 1993. 「소비에트건축: 1923-1937」, 서울: 도서출판 발연, p.135.

19) Anatole Kopp저, 건축운동연구회 역, 1993. op. cit., p.58.

20) Anatole Kopp저, 건축운동연구회 역, 1993. op. cit., p.135.

## 2.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 1) 사회학에서의 공동체와 공동체의식

- Hillery(1955)는 “공동체는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하나의 혹은 그 이상의 부가적인 공동의 유대를 통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라고 정의하고, 1) 지리적인 영역; 2) 사회적 상호작용; 3) 공동의 유대 혹은 연대가 공동체의 주요한 요소라고 함<sup>21)</sup>
- McMillan & Chavis(1986)<sup>22)</sup>는 공동체의식을 “구성원들의 소속감, 구성원들의 서로 중요하다는 느낌 또는 집단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느낌, 그리고 구성원들의 욕구가 자신들의 상호관여를 통하여 충족될 것이라는 공유된 신념”으로 정의함.

#### (1)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 Poplin(1979)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은 자기와 집단을 동일시하는 소속감,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일체감, 자발적 참여의식, 전인격적 인간관계로 구성됨. McMillan & Chavis(1986)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은 구성원의식(Membership), 상호영향의식(Influence), 욕구의 충족(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됨.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의 형성, 유지 및 강화, 참여에 영향을 줌.
- 구성원의식(Membership) : 소속감을 느끼거나 개인적 친밀감을 공유하는 것으로 경계(boundaries), 정서적 안전(Emotional safety), 소속감과 정체성(sense of belonging and identification), 개인적 투자(Personal investment), 공통 기호 시스템(common symbol system) 등 다섯 가지 속성이 있음.
- 상호영향의식(Influence) :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영향력과 구성원에 대한 공동체의 영향력이 동시에 작용한다는 양방향 개념으로, 구성원은 자신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느끼는 공동체에 더 끌리고, 공동체는 집단 응집력(group cohesiveness)과 순응(conformity)을 얻도록 구성원에 영향을 미침. 이는 결합의 강도를 나타냄.
- 욕구충족과 통합(Integration and Fulfillment of Needs) : 행동 동기로서의 강화(reinforcement)로 공동체 내 구성원의식을 통해 받은 자원으로 구성원들의 욕구가 충족될 것(보상)이라는 감정임. 욕구충족은 강한 공동체의 주요 요건으로 지

21) Poplin, Dennis E.(1979). "The Concept of Community", 「Communities :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신용하 편(1985), 「공동체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에 인용된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p.111-123. 재인용. 공동체라는 말은, 심성적·정신적 현상(심성적 차원에서의 공동체)으로, 사회적이며 지역적인 조직체 단위들(사회적 시각에서의 공동체)로 사용되기도 함.

22) McMillan, David W. & Chavis, David M.(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86-01, Vol.14 (1), p.6-23.

위(status), 역량(competence), 공유된 가치관(shared values) 등의 요소가 있음.

-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Shared Emotional Connection): 구성원들이 공유해온 헌신과 신념이며 역사, 공통의 장소,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는 것임. 공유된 정서적 연결의 원리는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 상호작용의 질(Quality of interaction), 사건 종결(Closure to events), 공유된 사건 가설(Shared valent event hypothesis), 투자(Investment), 명예와 굴욕의 효과(Effect of honor and humiliation on community members), 정신적 유대(Spiritual bond)가 있음.<sup>23)</sup>

<표 2-3> 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

구성요소	하위 요소
구성원의식	경계, 정서적 안전, 소속감과 정체성, 개인적 투자, 공통 기호 시스템
상호영향의식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영향력, 구성원에 대한 공동체의 영향력(집단 응집력과 순응)
욕구충족과 통합	지위, 역량, 공유된 가치관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	접촉, 상호작용의 질, 사건 종결, 공유된 사건, 투자, 명예와 굴욕, 정신적 유대

자료: McMillan, David W. & Chavis, David M.(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86-01, Vol.14 (1), p.6-23. 참고하여 작성함

## (2)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

- 이라영·신남수(2009)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은 기존연구에서 지역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지역사회 관련태도, 참여 관련요인, 주거특성요인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거주자의 배경\_거주자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_과 공동체적 정서, 물리적 환경, 환경 심리적 특성, 거주자들의 사회적 상호교류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구성될 수 있음.<sup>24)</sup>

## 2) 사회주의에서의 공동체

- 안토니 라이트(Anthony Wright,1998)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속성이 생산수단의 공적소유, 사회적 평등, 공동체주의(반개인주의)라고 명시함. 앤드류 헤이우드(Andrew Heywood,2007)는 사회주의의 요소를 공동체(community), 형제애

23) McMillan, David W. & Chavis, David M.(1986), op. cit. 공유된 정서적 연결의 관점에서, 강한 공동체는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상호작용 방법, 공유하는 중요한 이벤트와 해결방법, 구성원을 명예롭게 여길 기회, 공동체에 투자할 기회, 구성원들 간의 정신적 유대감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동체임.

24) 이라영, 신남수(2009).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계획계, 2009, 25(3), p.223-234.



(fraternity), 사회적 평등(social equality), 필요(need), 사회계급(social class), 공동소유(common ownership)'로 정의함.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사회주의는 공동체주의임.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사회의 핵심적 가치로 설정하는 사상이며 개인은 자신의 사익을 주장하기에 앞서 공동체의 이익, 즉 공익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함.<sup>25)</sup>

-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공동체 개념<sup>26)</sup> : 엥겔스(Friedrich Engels)에 의해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자로 규정되었던 영국의 오언(Robert Owen)이 제안한 '뉴 하모니(New Harmony),' 푸리에(Charles Fourier)의 '팔랑주(Phalange),' 생시몽(Henri de Saint-Simon)의 '산업체제(Système Industriel)' 등은 19세기 자유방임적 자본주의가 낳은 착취와 빈곤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새로운 공동체 구상이었음.<sup>27)</sup> 이들 협동 공동체의 특징은 생산, 소비, 분배 그리고 여타의 모든 일상 생활이 함께 이루어지는 완결된 공동체임. 생산 수단과 모든 생활시설의 사적 소유가 폐지되고, 이를 구성원 모두가 공유한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생산 노동은 개인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기여함. 그리고 여기서 모든 개인의 생산 노동은 노동시간에 따라 평가될 뿐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점에서 평등한 관계를 가짐.<sup>28)</sup>
- 사회주의 '공동체'의 한계 : 유토피아적 사회주의의 공동체는 '협력과 평등을 위해, 개개인이 자신의 이기심과 우월감 등을 제어하고 저항 없이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함. 오언과 생시몽은 교육과 도덕종교 등을 통해 우애와 협동 정신을 체화시킴으로써 공동체 존속과 운영을 위한 확고한 정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음.<sup>29)</sup>

### 3) 사회주의국가에서의 공동체

-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일당제라는 권력체계가 결합하여 국가를 형성하면서 공동체의 성격도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적 공동체(의도적 공동체)'에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결합된 '강제된 공동체'의 성격을 가짐. 국가가 지정한 '강제된 공동체' 개념을 통해 노동-주거-휴식의 공유 공동체를 구축함. 거주하는 블

25) 김익성(2011).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27(1), p.151-179.

26) 문성훈 (2017). 공동체 개념의 구조 변화. 문화와 정치, 4(4), p.43-68.

27) 문성훈 (2017), op. cit. 1824년 미국에 건설한 '뉴 하모니'는 800~1,20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이 똑 같은 크기의 땅을 경작하고, 추가적으로 제조업에 종사함으로써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함. 이 공동체는 생산시설만이 아니라, 공동의 숙소, 식당, 조리실은 물론 학교, 도서관, 회의실, 예배시설, 진료소 등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이 이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짐. '팔랑주'는 1,62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자급자족 공동체였으며, 농업을 중심으로 다른 산업들이 결합되어 있고, 분배는 노동, 자본, 재능을 얼마나 투자했느냐에 따라 결정됨. 공동주택 및 학교, 극장, 교회와 같은 공동시설들이 있고, 아이들을 공동으로 양육하며, 교육은 무상으로 함.

28) 문성훈 (2017), op. cit.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빈곤을 낳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와 경쟁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지님.

29) 문성훈 (2017), op. cit.

록 내에서 노동, 주거, 휴식 등 생활유지가 가능하므로 사회주의 주거복지 추구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공감시 업무도 수행함.<sup>30)</sup>

### (1) 소비에트(스탈린체제)

- 파이지스(Orlando Figes, 2007)에 따르면, 볼셰비키는 '집단적 인간' 창출을 위해, 국가가 공공시설과 공동주택 단지에 탁아소와 세탁소, 식당을 제공하면서 모든 기본적인 가정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주거공간을 공유하게 했음. 이로 인해, 사적 공간과 소유는 사라지고, 가족생활은 공산주의 형제애와 조직으로 대체되고, 개인의 사적 생활은 공동체의 상호 감시와 통제 아래 놓일 것으로 기대했음.<sup>31)</sup>
- 박원용(2010)에 의하면, “자본주의체제나 사회주의체제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스탈린 체제)의 일상생활은 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구속력에서 분리하여 진행될 수 없었다.”, “스탈린 체제의 보통 사람들은 일상을 꾸려나가는데 국가권력에 일면 순응하기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항하기도 했다(암묵적인 저항과 협조의 태도).”라고 언급함.<sup>32)</sup>

### (2) 중국(마오쩌둥 시대)

- 중국은 일과 삶을 하나의 공간 안에 묶는 '단위제도'가 있으며, 단위제도는 공동체적 생활환경 속에서 집단의식을 만들고, 집단화·조직화된 행동양식을 생산했음.<sup>33)</sup> 기업은 하나의 단위이며 단순한 생산기능만을 가진 사회조직만이 아니라 생활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있음. 개인차원에서는 수입만이 아니라 종신고용, 주택, 의료, 양로 등의 보장 전부가 단위에 내포되어 있음. 단위를 통해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사회를 전면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음.<sup>34)</sup> 특히, 단위를 매개로 한 사회통제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개인 기록인 '당안제도'가 있었기 때문임.<sup>35)</sup>

30) 신건수·박진석(2021). "7강 소구역계획과 북한식 생활방식", '북한도시와 건축', <http://www.kmooc.kr/>. 강의안.

31) 올랜도 파이지스(2007); 김남섭 역(2013). 「숙삭이는 사회 : 스탈린 시대 보통 사람들의 삶, 내면, 기억」, 서울 : 교양인. 볼셰비키혁명 초기, 1917년~1925년 태어난 세대의 이야기를 9가족의 구술증언과 개인소장 편지, 메모, 회고록, 사진 등의 자료를 통해 구술증언의 진위여부를 검토함. 파이지스는 '아파트 공산주의' 장에서, "가장 사적인 기능을 위해 사용하는 공간(욕실, 부엌, 화장실)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했으며, 이 '공적 사생활' 형태에서 사적 생활은 끊임없이 집단적 감시에 노출되었다."라고 언급함.

32) 박원용(2010). "스탈린 체제 일상사연구의 현황과 쟁점",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 외침과 속삭임」, 고유환 외 11인, 과주 : 한울. 자본주의체제의 일상생활에서 그 구성원들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의 구속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음. p.38.

33) 장윤미(2010). "중국 기층사회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과 인민의 일상",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 외침과 속삭임」, 고유환 외 11인, 과주 : 한울.

34) 이중희(2003). '중국 단위체제의 변화와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위기', 국제지역연구, 2003-09-30, Vol.7 (3), p.85.

35) 장윤미(2010), op. cit. 도시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당안으로 관리됨. 그 안에는 출신성분과 사회관계, 본인의 정치적 태도, 정치운동의 결론뿐아니라 다른 사람의 밀고 자료도 들어 있음.

### 제3장. 북한의 주택소구역과 지역공동체





### 1. 북한 주택소구역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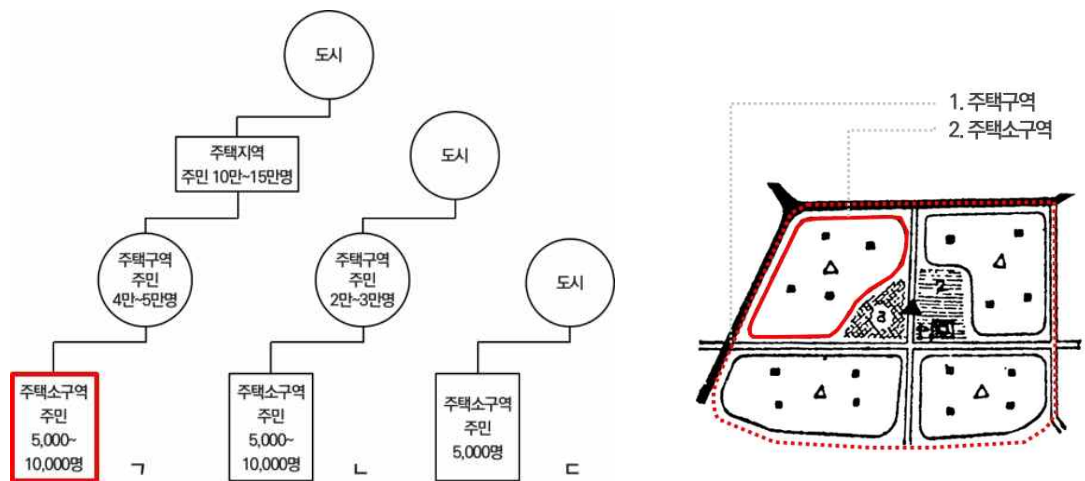
- 북한의 주택소구역은, 사회주의 도시의 주거지계획에서 주민의 집단공동생활(communal life)을 조직하기 위하여 공간적인 기초단위로 상정한 마이크로 디스트릭트(micro-district) 개념을 북한 현지화한 것으로 사회주의 주거지계획의 일반적 원칙들이 유사하게 적용된 점을 발견할 수 있음.

#### 1) 북한 주택소구역의 사회주의 도시 공간적 특성

##### (1) 도시 공간의 계층구조 형성

- 주택소구역은 도시에서 거주 지역을 형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주택 소구역은 하위단위인 몇 개의 주택군으로 구성되는데, 주택군은 인구 1,000명~2,500명의 규모이며, 주택군이 4~5개 모여 하나의 소구역을 형성함.
- 평양의 경우, 소구역의 규모는 15~20ha로서 5,000~6,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이것이 기초단위가 되어 몇 개의 소구역이 모여 주택구역(인구 40,000~50,000명)을 구성하며, 이것이 모여 주택지역(100,000~150,000명)을 구성하는 계층구조를 이루고 있음.<sup>36)</sup>

<그림 3-1> 도시 생활단위 체계도 및 주택구역 구성



ㄱ.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    ㄴ. 인구 10~20만명 도시    ■ 주택군    △ 소구역중심    ▲ 주택구역중심  
 ㄷ. 소도시

자료: 리순건, 1963. “주택 소구역 계획”, 국립건설출판사, 평양, p.56-58.

36) 리순건, 1963. “주택 소구역 계획”, 국립건설출판사, 평양, p.34, 56.

(2) 집단 소비·서비스시설의 공간적 균등배치

- 주택소구역의 봉사시설은 근린주구의 상업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과 유사하며, 주택소구역 내에 배치되는 모든 생활편의시설(교육시설, 상업시설, 공동가사시설, 생산시설, 행정시설 등)을 총칭함.
- 소구역 내 거주자들이 최대한 동질적 주거환경과 생활편의시설을 점유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주택소구역계획의 궁극적인 목표로, 이에 핵심이 되는 봉사시설은 주민수와 봉사반경을 고려하여 완비된 생활단위체계로 구성함으로써 주민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음.<sup>37)</sup>
- 소비에트의 '단계식 문화생활 서비스 체계'와 비교할 때, 반경이 보다 작은 초급 봉사단위(반경 100~150m)를 조직하였으며, 이는 인민반 제도와 결합하여 주민 활동 및 생활의 기초 단위로 작동함.

<표 3-1> 소구역의 생활단위체계

구분	봉사시설
초급 봉사단위	- 봉사반경 100~150m, 주민수 2,000~3,000명 - 밥공장, 가족식당, 부식물매대, 세탁물 취급소, 가내작업반(인민반의 기혼여성들을 모아 조직), 어린이 놀이터, 노인휴식장, 공동녹지, 경영뜰, 구획내 소시장, 고품수매소 등
소구역 봉사단위	- 봉사반경 400~500m, 주민수 6,000~9,000명, 매일 봉사를 위한 시설 - 주택들과 최대한 가깝게 배치함. - 탁아유치원, 7년제학교, 아동도서관, 약방, 종합진료소, 대중식당, 식료품상점, 두부공장, 생활봉사기관, 이발관, 저금소, 식량공급소, 연료공급소, 종합관리반(도시경영), 소구역 공원, 체육장, 동사무소 등
구역 봉사단위	- 봉사반경 750~1,500m, 주기적 봉사를 위한 시설 - 건설과 경영을 위해 주택구역 중심에 계획함. -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영화관(문화회관, 아동회관 포함), 구역도서관, 구역책방, 구역급 전람관, 구역병원, 위생방역소, 종합약국, 전문식당, 고급식당, 공업품상점, 식료품상점, 수산물상점, 목욕탕, 종합편의수리, 양복점, 리발관, 사진관, 구역건물관리소, 구역경기장, 공원, 지방산업공장, 구역종합청사 등

자료: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193; 국가건설위원회 중앙설계연구소 도시계획연구소, “도시 계획에서 소구역 설계에 대한 몇 가지 의견”, 「건축과 건설」, 1961년 12월, 평양:공업출판사, p.19-23.

37) 김민아, 2018.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113, 193.

### (3) 일상공간의 공용화

#### ① 공동 가사시설

- 북한의 경우, 사회주의적 공동생활을 구현하려는 기본 목적과 여성이 생산현장에 참여하는 노동계급이 되어 경제적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는 사회주의 국가의 여성 해방 정책이 반영되어,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 장치들을 마련하였음.<sup>38)</sup>
- 이에 따라 주택소구역의 봉사시설에는 기존의 아동교육기관, 체육시설, 목욕탕 및 세탁소, 상업시설 외에 밥 공장, 반찬 공장, 가족식당과 같은 공동가사시설이 추가되었으며, 1959년 2월에 발표된 대타령 모범주택 소구역 제87호에서 현실화되었음.

#### ② 공동 생산시설

- 1950년대 후반까지는 가사 일을 경감시키는 시설을 설치하여 여성들의 근로시간을 보장하려 했다면, 1960년대 이후부터는 주택소구역 안에 여성들을 직접 투입시킬 수 있는 생산시설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소구역 계획방법이 진화하게 됨.
- 리순건(1962)에 따르면, 유해성의 정도와 요구되는 물의 양에 따라 공장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넓은 대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물 사용량이 적고, 주민들에게 제품을 신속히 공급해서 부패를 막아야 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소구역 내에 배치할 것이 제안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로 식료품과 두부공장, 주방공장, 가내 작업장 등이 주택 소구역의 봉사망 중심에 배치되었음.<sup>39)</sup>
- 또한 소구역 봉사중심에 주방공장과 가족식당 외에 전문식당이 설치되는데, 이를 통해 소구역 내 여성들은 가사일을 절감할 수도 있고, 전문식당에 종사하면서 생산현장에 소속될 수도 있게 되었음.
- 리화선(1989)에 따르면, 이를 통해 “우리의 살림집지구, 살림집 소구역은 인민들이 휴식과 소비만 진행되는 곳이 아니라 노동과 생산이 진행되는 곳으로 되었다”고 강조함.<sup>40)</sup>

#### ③ 사상·교양시설

- 소구역 계획방법이 적용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 초급생활단위가 조직되어 초급봉사시설로서 주민들의 사상문화교양을 위해 선전실이 계획되었음.

38) 김민아, 2018. op. cit., p.97.

39) 리순건, “유해성이 없는 경공업 공장들의 주택 지구 내 합리적 배치”, 『건축과 건설』 1962년 8월, 평양: 공업출판사, p.6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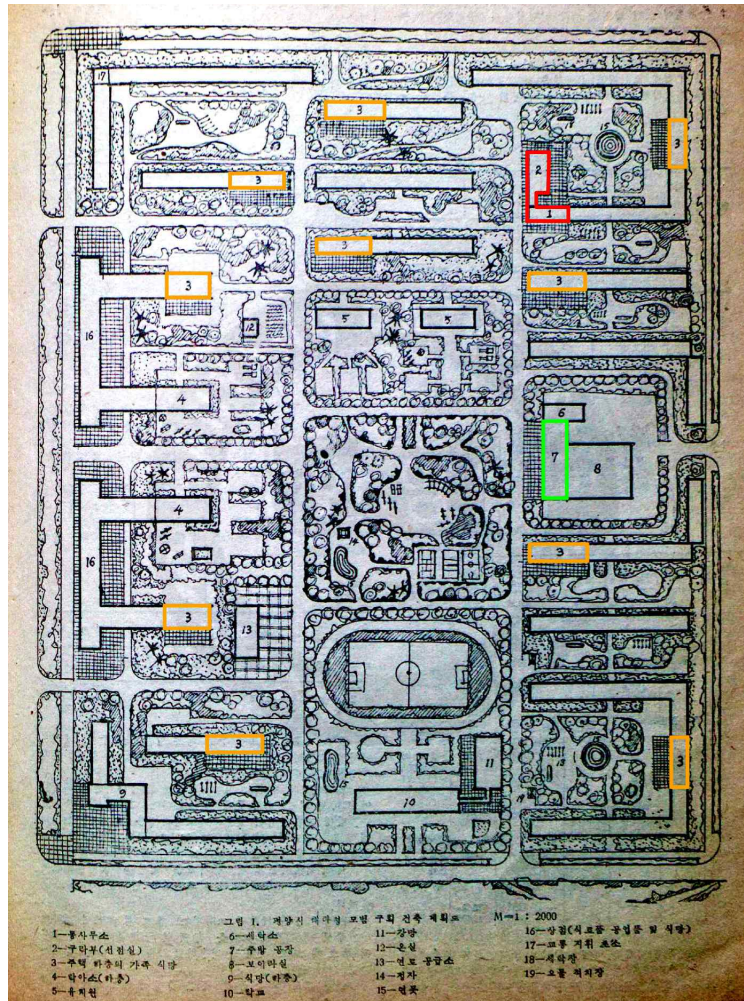
40)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193-195.

- 리화선(1989)에 따르면, 이를 통해 “살림집 소구역은 처음부터 단순한 생활장소가 아니라 근로자의 문화휴식과 사상문화교양장소로, 사회주의적 생활을 누리는 생활장소로 꾸러지기 시작하였다”고 강조함.
- 1967년 이후에는 주민들에 대한 사상문화교양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문도서관, 아동도서관 등이 살림집 아래층에 설치되었음.<sup>41)</sup>

## 2) 주택소구역계획이 적용된 사례: 평양 대타령 제87호 살림집 소구역

- 평양 대타령 제 87호 살림집 소구역은 1959년에 착공하여 1960년대 초에 완성하였으며, 북한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어 시범적 의의가 큰 소구역임.

<그림 3-2> 대타령 모범 주택 소구역 87호 배치도



자료: 안량옥, 1959. “대타령 모범 주택 구획 조직에 대하여”, 「건축과 건설」, 1959년 2월호, 평양: 공업출판사.

41) 리화선, 1989. op. cit., p.193-195.



- 특히, 이 소구역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방공장(그림의 초록색)과 가족식당(그림의 노란색)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주방공장은 야채나 곡물과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손질이 필요한 식료품에 대한 가공을 하고, 이를 가족식당에 반제품의 형태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인구 5,000~6,000명의 소구역 1개당 1개씩 설치하고, 각 가족식당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소구역의 중앙에 위치시켰음.
- 가족식당은 주방공장에서 배달된 반제품을 요리하여 거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거주민의 50%가 이용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살림집 건물 2동당 1개씩, 살림집의 1층에 설치하였음.<sup>42)</sup>
- 또한 평양 대타령 제 87호 살림집 소구역에는 사상문화교양을 위한 선전실(그림의 빨간색)이 동사무소와 같이 배치되었음.

### 3) 주택소구역계획이 적용된 최근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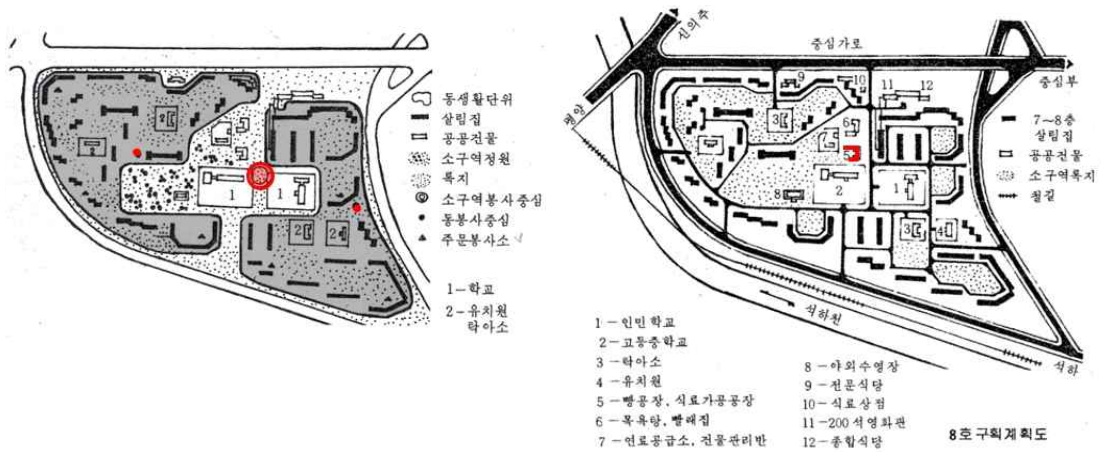
- 1990년 1월에 발간을 시작하여 연 4회 발행되는 북한 연속간행물 「조선건축」을 통해 주택소구역의 최근 사례를 살펴보고 주택소구역의 계층구조, 봉사시설로 구성된 생활단위체계, 공동 가사시설, 공동 생산시설, 사상·교양시설을 확인하였음.

#### (1) 남신의주 8호 구획(계획년도 1990년)

- 남신의주 8호 구획의 대지면적은 약 30,000㎡(약 3정보)로서 소구역의 생활단위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2개의 동 단위로 조직하였으며, 봉사시설은 주문 봉사단위, 동 봉사단위, 소구역 봉사단위로 구성되는 단계적 생활단위체계를 이루고 있음.
- 단계적 생활단위체계 중, 동 봉사단위의 봉사반경은 400m(보행도달거리 500~700m)로서, 동 중심에 봉사단위의 중심을 설정하고, 이곳에 사상교양시설인 동사무소(선전실), 공동 생산시설인 가내작업장, 그리고 탁아소, 유치원, 저금소, 식료상점, 남새과일상점, 물고기상점, 어린이 이발관, 물놀이장, 녹지 등을 배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소구역 봉사단위의 봉사중심은 소구역 중심에 설정하고 봉사반경을 600m(보행도달거리 700~800m) 범위로 정하였으며, 이 봉사반경 안에 공동 가사시설인 빵공장, 공동 생산시설인 식료가공공장(김치공장), 그리고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종합진료소, 목욕탕, 빨래집, 식량공급소, 연료공급소, 건물 및 시설물 관리소, 공업품상점, 식당, 양복점, 이발 및 미용소, 소구역정원, 야외수영장 등을 배치하였음을 확인하였음.

42) 안량옥(평양시 도시설계연구소 도시계획실 설계원), 1959. “대타령 모범 주택 구획 조직에 대하여”, 「건축과 건설」 1959년 2월호, 평양: 공업출판사, p.7~11.

<그림 3-3> 남신의주 8호 구획의 생활단위 조직도 및 구획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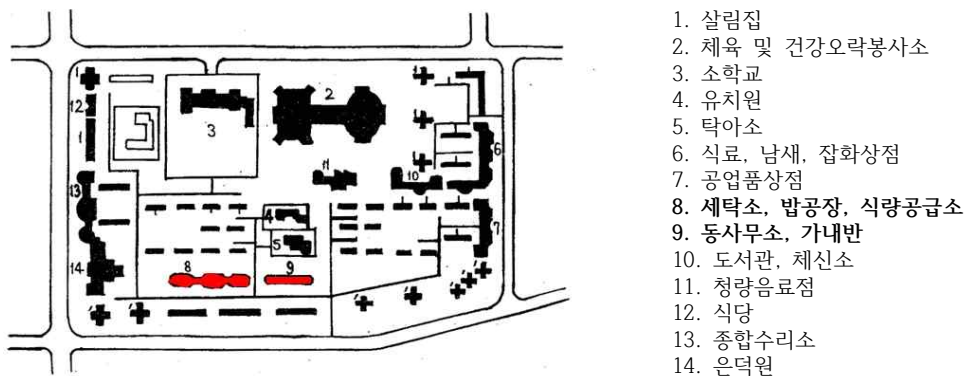


자료: 김재건, 1990. “남신의주 8호 구획 건축계획에서 얻은 경험”, 조선건축 제12호(1990년 3월), p.75-76.

(2) 평양 상원 2호 구획(계획년도 2004년)

- 상원 2호 구획의 대지면적은 135,000㎡(약 13.61정보)로서, 구획을 하나의 완성된 생활단위로 꾸리기 위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봉사요소로서 공동 가사시설인 밥공장과 식료상점, 남새상점, 잡화상점, 편의수리, 이발, 미용, 식량공급소, 소학교, 유치원, 탁아소, 식당 등을 이용반경을 고려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치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또한 공동 생산시설인 가내반을 배치하여 여성들의 사회생활에 보다 편리한 조건을 갖추어 주도록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음.43)

<그림 3-4> 상원 2호 구획계획도



자료: 신봉숙·리지혜(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2004. “상원 2호 구획 형성계획”, 조선건축 2004년 3호, p.60.

43) 신봉숙·리지혜(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2004. “상원 2호 구획 형성계획”, 조선건축 2004년 3호, p.60.

## 2. 인민반과 주민활동

### 1) 북한의 생애주기적 집단·조직생활과 인민반

- 북한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사회이며 이를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음. 사회주의 헌법 제6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2조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음.<sup>44)</sup>
- 북한 주민들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 과정에 걸쳐 조직생활에 속하게 되는데, 정규적인 조직생활은 만 7세에 소학교에 입학하면서 조선소년단 생활로부터 시작되며, 중학교 4학년이 되는 14살부터는 모든 청소년들이 청년동맹에 속하여 활동하며, 18세부터는 조선노동당 당원이 될 수 있는데, 당원을 제외한 30세 이상의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성별, 직업에 따라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등의 근로단체에서 조직생활을 함. 결혼하여 근로단체에 속하지 않은 여성은 여성동맹으로 이맹(移盟)하게 됨.<sup>45)</sup>
- 위와 같은 생애주기를 전반을 포함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를 단위로 조직된 것이 인민반임. 일반적으로 북한의 모든 조직들은 일정한 공통된 기준(연령, 직업, 성별, 결혼)을 가진 특정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민반은 간부, 당원, 남녀노소, 계층 등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을 포함하는 조직임. 따라서 인민반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있는 최말단 기층조직이며, 북한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포괄적인 기초사회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sup>46)</sup>

<그림 3-5> 북한의 집단·조직생활과 인민반



자료: 김종수, 2008. “북한의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008-12, Vol.1 (21), p.17의 자료를 재구성.

44) 백과사전출판사 편, 2001. 「조선대백과사전」, 제28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p.654.

45) 김종수, 2008. “북한의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008-12, Vol.1 (21), p.5-37.

46) 배영애, 2018.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12-31, Vol.10 (2), p.193-240.

## 2) 인민반의 역할과 주민활동

- 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인민반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들을 파악할 수 있었음.

<표 3-2> 인민반의 역할 및 주요업무

알렉산드르 제빈(1994)	채경희(2017)	배영애(2018)
1. 사상·교육적 과업 2. 주거지역에 대한 위생·보건 업무의 수행 (주택 및 공공 시설의 수리, 청소, 조경) 3. 성원의 사회참여 보장 (국가건설동원, 가내작업반) 4. 가정 경제의 합리적 이용, 석탄, 전력, 용수의 절약적 소비를 위한 투쟁작업 5. ‘혁명적 규율과 질서’의 확립과 유지	1. 집합적 주거를 통한 조직생활 구축 2. 가정 혁명화의 실현 3. 사회주의 사상 완성 및 강화 4. 의료예방시스템 구축 5. 연료, 생필품, 식료품 등의 공급 6.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민동원	1. 공동주거를 통한 집단주의 구현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 2.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과제수행과 사회동원 (마을과 거리 꾸리기, 가내작업반, 국가건설동원 등) 3. 주민들의 일상생활 통제와 감시

자료: 알렉산드르 제빈, 1994.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연구』, 제 37권 제1호, p.141-159; 채경희, 2017. “북한 인민반의 조직,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 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5호, p.809-819; 배영애, 2018.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12-31, Vol.10 (2), p.193-240.

### (1) 선전강화 및 사상학습: 선전실, 어머니 교양실, 아동 교양실

- 인민반의 최우선적 의무는 수령과 당 주위에 주민들을 확고하게 결집시키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인민반 내에서 수령과 당의 위대함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에 대한 사상·교육적 과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sup>47)</sup>
- 인민반장은 회의, 강연회, 방송청취 등을 통해 사상학습을 진행하는데, 사상교양의 기본 형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들 그리고 이것이 구현된 노동당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학습임.<sup>48)</sup>
- 노동신문(1963)에 따르면, 평양 중구역 경상동 30반 반장 심덕실이 어머니 교양실에서 혁명 전통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한 경험에 대해 소개한 글이 실렸는데, 반 내 어머니들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당 정책과 수상 동지의 교시를 인민반 생활과 결부시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었으며, 매주 1회 연구모임을

47) 알렉산드르 제빈, 1994.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연구』, 제37권 제1호, p.141-159.

48) 알렉산드르 제빈, 1994. op. cit.

조직하여 운영하였음.<sup>49)</sup>

- 수령과 당에 ‘무한히 충성스러운’ 미래세대를 교육시키는 것 또한 인민반에 있어 중요한 과업임. 아동교양사업의 기본 형식은 김일성 일가의 ‘인민에 대한 배려’와 ‘고결한 공산주의의 도덕성’을 다룬 노래들과 시들을 암송시키는 것임.<sup>50)</sup>

## (2) 마을과 거리 꾸리기

- 인민반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변과 담당구역 도로의 위생 상태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고 거리와 마을을 알뜰하게 꾸려나가는 것임.
- ‘마을과 거리 꾸리기’ 시기는 매년 3월경, 겨울 동안 얼어있던 오물을 제거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까지 이 과제가 집중되며, 봄과 가을철에는 거의 매일, 여름에는 이틀에 한 번 이루어질 정도로 빈도수가 높음.<sup>51)</sup>
- 특히,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전까지는 얼마나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미는지가 충성도의 기준이 되며, 평양의 경우, 최고지도자의 현지지도나 외국 인사들의 초청과 같은 행사가 있으면 ‘마을과 거리 꾸리기’를 위해 인민반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집중 동원됨.<sup>52)</sup>

## (4) 국가건설동원 및 농촌지원

- 세대주반장을 중심으로 한 인민반원들은 국가건설동원, 농촌지원전투 등의 각종 노력동원사업에 참여함. 낮 시간의 노력동원은 직장을 가지 않는 가두여성들과 노인들이 수행하며, 직장인들은 보통 출근 전에 1-2시간 노력동원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침식전동원’이라고도 함.<sup>53)</sup>
- 국가건설동원은 인민반의 세대원들이 주로 인근 지역에서 건설작업을 하고 있는 돌격대의 요청으로 돌이나 자갈 등의 공사자재를 확보하고, 이를 공사현장에 나르는 역할을 담당하며, 탄광지원, 광산지원, 발전소 건설 등에 동원됨. 농촌지원전투는 계절마다 모내기, 김매기, 추수동원 등이 있음.<sup>54)</sup>

49) 「로동신문」, 1963년 3월 13일.

50) 알렉사드르 제빈, 1994. op. cit.

51) 채경희, 2017. “북한 인민반의 조직,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 7권 제5호, p.809-819; 배영애, 2018. op. cit., p.193-240.

52) 「로동신문」, 2014년 4월 22일.

53) 「로동신문」, 1992년 2월 5일.

54) 배영애, 2018. op. cit., p.193-240.

### 3. 북한 지역공동체의 특성

#### 1) 시기별 특성

##### (1) 사회주의 건설 과정(1950년대 이후)

- 장세훈(2005)에 따르면, 북한은 지역사회 단위에서 주민을 하나로 묶기 위해 집합주의적 생활양식을 적용했음.

1) 주거양식과 도시공간 배치 : 공동주택이라는 주거양식과 직·주 근접이라는 도시공간 배치와 ‘살림집 소구역 제도’를 추진했음. 주거지와 생활에 필요한 편의봉사시설을 하나로 묶어 일괄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거지 인근에서 모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음.

2) 거주 이전과 여행의 제한 : 지역사회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함.

3) 인민반 조직 : 인민반 단위(행정기관의 말단조직)로 조직된 지역사회는 이웃간의 상호부조적인 기능(전통적 상호의존 관계)도 담당했지만, 주로 모든 사회구성원을 사회동원 체제에 편입시키고 개개인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고 통제했음.<sup>55)</sup>

##### (2) 경제위기의 심화(1990년 식량난 시기)

- 1990년 식량난과 배급제의 중단으로 인민반을 통해 이루어지던 근린간의 상호부조 관계가 약화되고, 이웃관계가 해체되고 소가족주의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이 등장했음. 인민반 활동에 참석하는 가구도 20가구 가운데 대여섯 가구나 열 가구 안팎에 지나지 않았고, 개인의 주거이전에 대한 제약과 인민반을 통한 주민 감시와 통제의 기능이 약화되었음.<sup>56)</sup>

#### 2) 지역공동체(이웃관계의 조직화)에서 인민반의 기능

- 모든 사회활동은 집단과 단체,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며, 행정조직의 최하위 단위인 인민반은 북한주민의 집단생활을 유지하는 기초 조직임.<sup>57)</sup> 동(읍, 리)사무소 밑에 가구를 단위로, 일정한 공간(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조직되며<sup>58)</sup> 20~40가구로 이루어짐.<sup>59)</sup> 인민반은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기층조직으로, 간부, 당원, 남녀노소, 계층 등에 의해 구성되는 조직과 달리, 일정한 공통된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기초사회집단임.<sup>60)</sup>

55) 장세훈(2005).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한국사회학, 39(2), p.100-134.

56) 장세훈, op. cit., 2005.

57) 김병로(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8) 김윤애(2016). '북한의 사회적 관계와 주민 사회화 과정의 메커니즘: 국가주의 통합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41권 1, p.111~144.

59) 김동한 외 6(2006). 「북한의 사회문화」, 파주: 한울.

60) 배영애(2018).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통일과 평화, 10(2), p.193-240.

- 인민반은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 주민들의 사상동향·동태·살림살이 감시, 사회적 동원·지원, 거리와 마을의 환경을 관리함. 따라서 인민반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혼합됨. 즉, 집단생활과 개인생활이 공존함.

1) 전통적 상호의존 관계 : 인민반장의 역할에 따라, 인민반원들의 관계가 활발해 지거나 위축되기도 하며, 소속감과 우월심리가 좌우됨. 멀리 있는 자식들이 장례 전에 오지 못해도 인민반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치러주는 등 서로 돕고 의지하는 전통적 미풍양속이 어려운 생활고 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북한 주민들은 거주이동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어려워 특별한 인사조동 이외에는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정주된 생활을 하며, 이 과정에서 이웃 간 관계를 매우 중시하게 되었음.

2) 감시와 동원의 장 : 일반적으로 북한의 주택은 밀집되어 있어서 주민들 상호 간 거동이나 동태가 노출됨. 이러한 조건은 이웃 간에 친밀감이 형성되는 반면 서로에 대한 감시에 유리함. 인민반 감시체계는 이웃간 가까운 사이였다가도 이해관계가 어긋날 때에 상대방에 대한 공격의 무기로 활용되어 적대관계로 변하게 할 수 있음.

- 지역공동체(이웃관계)를 구성하는, 인민반 구성원들간의 관계는 친밀하면서도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는 이중적 관계를 형성함.<sup>61)</sup>

---

61) 김윤애, op. cit., 2016.





## 제4장. 북한 주택소구역의 주거환경 및 주민활동의 최근 변화





1.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의 개요

- 2021년 8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 북한이탈주민 100명의 설문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를 검토하여 다양한 연령대 및 지역의 대상자 7명(파일럿 3명 포함, 총 10명)을 선정 후, 2021년 10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음.

<표 4-1> 설문조사 참여자의 인적사항

	구분	빈도
성별	남	16
	여	84
	합계	100
거주지역	평양	11
	혜산	37
	청진	33
	함흥	7
	기타(남포, 평성, 사리원, 원산 등)	12
	합계	100
연령대	20대	19
	30대	32
	40대	11
	50대	21
	60대 이상	17
	합계	100
탈북시점	~2005	10
	2006~2010	32
	2011~2015	39
	2016~2020	19
	합계	100
북한직업	근로자 (노동자, 사무원, 전문가 등)	54
	학생	13
	장사	20
	가정부인	9
	무직 및 기타	4
	합계	100
인민반장경험	유	15
	무	85
	합계	100

<표 4-2> 설문조사 참여자의 북한 살림집의 일반적 사항

구분		빈도	비고
살림집 형태	아파트	40	· 최고층수 25층 · 하모니카집의 경우, 모두 단층으로 응답함.
	하모니카집(연립주택)	49	
	독집	11	
	합계	100	
한 층 살림집 수	1~5	70	· 하모니카집의 경우, 2~30세대로 응답함. · 아파트의 경우, 2~20세대로 응답함.
	6~10	21	
	11~15	2	
	16~20	6	
	20~	1	
	합계	100	
거주기간	5년 이하	17	· 최소 1년 7개월, 최대 49년 거주하였음.
	6~10년	21	
	11~15년	17	
	16~20년	16	
	21~25년	9	
	26~30년	15	
	31년 이상	5	
	합계	100	
장만방법	국가에서 배정	41	· 기타: 남편이 살던 집 등
	매매(부모님 매매 포함)	47	
	부모님 집에 동거	5	
	친척 집에 동거	2	
	기타	5	
	합계	100	
규모	10평 이하	11	· 최소 4평, 최대 65평 으로 응답함. · 방의 개수의 경우, 최소 1개(부엌, 거실 겸), 최대 5개(부엌, 거실 별도, 화장실 2개)로 응답함.
	11~20평	39	
	21~30평	27	
	31~40평	13	
	41~50평	5	
	51평 이상	5	
	합계	100	
가족 수	2명	17	· 최소 2명, 최대 8명으로 응답함. · 평균 3.80명
	3명	22	
	4명	39	
	5명	14	
	6명 이상	8	
	합계	100	

제4장. 북한 주택 소구역의 주거환경 및 주민활동의 최근 변화

<표 4-3> 심층면담 참여자의 인적사항

구분	성별	거주지역	연령대 (출생연도)	탈북시점	북한직업	가족구성	살림집 형태	비고	
1	평양1	여성	평양시 선교 구역	30대 (1987년)	2013년 3월	편직공장 노동자	3인 부모+본인	하모니카 집	
2	혜산1	여성	혜산시	40대 (1973년)	2019년 5월	주부, 장사	2인 본인+자녀1	아파트, 하모니카 집	인민 반장 경험
3	평양2	남성	평양시 모란봉 구역	20대 (1992년)	2020년 1월	군인	4인 모+누나 +본인+조카	아파트	
4	혜산2	여성	혜산시 연두동	50대 (1971년)	2009년 8월	장사	3인 모+본인 +자녀1	아파트	
5	혜산3	여성	혜산시 해강동	50대 (1966년)	2009년 9월	주부, 장사	5인 배우자+본인 +자녀3	아파트, 하모니카 집	
6	평양3	여성	평양시 모란봉 구역	50대 (1965년)	2004년 9월	사무원	4인 배우자+본인 +자녀2	아파트	
7	청진1	여성	청진시 포항 구역	70대 (1951년)	2010년 5월	교원, 장사	5인 배우자+본인 +자녀3	아파트	
참고1	경성1	남성	경성군	20대 (1992년)	2008년 10월	학생	3인 부모+본인	독집	파일럿
참고2	청진1	여성	청진시	60대 (1962년)	2001년 11월	농민	8인, 부모 +본인가족 +오빠가족 +동생가족	독집	파일럿
참고3	혜산4	여성	혜산시	30대 (1991년)	2017년 8월	장사	4인 부모+오빠 +본인	하모니카 집	파일럿

## 2. 봉사시설에서의 주민활동

- 북한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사회이며,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북한의 주택소구역에는 공동 취사·식사시설과 사상·교양시설, 공동 생산시설이 조직되어 있어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집단주의적 가치가 학습되고 장려됨.
- 소구역의 생활단위체계(초급 봉사단위-소구역 봉사단위-구역 봉사단위)를 구성하는 봉사시설을 성격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표 4-4> 봉사시설의 구성

구분	봉사시설
공동 가사시설	밥공장, 가족식당, 전문식당, 부식물 매대, 세탁물 취급소
공동 생산시설	가내작업장, 경공업장, 식료품공장, 지방산업공장
사상·교양시설	선전실, 신문도서열람실, 어머니교양실, 아동교양실,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
교육·문화시설	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도서관, 영화관, 문화회관, 아동회관
상업·업무시설	식량공급소, 연료공급소,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 고품수매소, 저금소, 약방, 종합진료소, 종합편의수리소, 건물관리소, 동사무소, 한증탕(목욕탕), 이발관(미용실)
체육시설 및 외부 공유공간	어린이놀이터, 노인휴식장, 공원, 체육장, 운동장, 공동녹지

자료: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p.193의 내용을 재구성.

### 1) 공동 가사시설

-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 북한에서 거주했던 주택 구획(소구역)에 공동 가사시설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밥공장이 9명, 가족식당이 20명, 전문식당이 27명, 부식물매대가 58명, 세탁물취급소가 10명임.
- 밥공장의 경우, 평양에서 온 11명의 참여자 중 5명이, 혜산에서 온 37명 중 1명이, 청진에서 온 33명 중 3명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함흥과 기타 도시의 경우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었음.

<표 4-5> 공동 가사시설의 존재 여부

구분	“유” 의 빈도
밥공장	9
가족식당	20
전문식당	27
부식물매대	58

(1) 밥공장의 역할과 주민활동

- 평양과 청진 출신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밥공장은 행정동 별로 1개씩 있으며, 행정동의 이름을 붙여 ‘○○동 밥공장’으로 명명함. 청진의 경우 고난의 행군이 후,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평양의 경우 현재까지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생산하는 품목은 청진의 경우, 잡곡밥, 국수, 빵 등이었으며, 직장에서 배급한 표(양표)를 제출하여 교환하는 형식이었음. 현재 평양의 경우, 식량난으로 인하여 밥공장의 생산 품목은 주로 옥수수면, 옥수수쌀, 옥수수떡가루, 밀가루 등이며, 직접 들고 간 곡물과 생산한 가공품을 교환하고 수수료를 일부 지급하는 형식을 알 수 있음.
- 밥공장이 처음으로 도입된 1960년대에는 야채나 곡물과 같이 물을 많이 사용하고 손질이 필요한 식료품에 대한 가공을 하여 밥과 반찬의 반·완제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현재는 제분소의 기능으로 역할이 축소된 것으로 사료됨.
- 북한 주민들은 밥공장에 교환하러 갈 때, 이웃과 같이 가는 경우가 많으며, 새벽부터 장시간 길게 줄을 서는 동안 이웃과 대화나 교류를 활발하게 함.

그러니까 우리가 남강 1동이 됐으니까 ‘남강 1동 밥공장’ 이렇게 된 거예요. 동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중략) 밥이나, 국수, 빵 같은 것 그런 거 해요. 기본이 북한 사람들은 밥하고 국수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백미밥이라는 건 되게 드물어요. 다 잡곡밥이지. 잡곡밥을 지어서 조금씩 소분해서 파는 거지 거기서. (중략) 파는 것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돈으로 안 팔아요. 양표로 가져가야 돼. 양표라는 거가 그러니까 배급을 우리 타 먹고 살았잖아요. (참여자\_청진1: 7)<sup>62)</sup>

(중략) 근데 그게 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그 양표라는 게 없어지고 배급소도 다 없어졌잖아요. 국가에서 밥공장은 운영을 했거든요. 다 우리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지 개인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국가에서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문 닫고 없어진 걸. 여기처럼 자본주의화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 돈도 있고 좀 할 수 있으면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밥공장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식당처럼, 배달도 조금 해주기도 하고, 원래는 그런 게 없었어요. (참여자\_청진1: 6)

밥 공장이라고도 하고 빵공장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이름 자체가 ‘밥 공장’이고요. ‘무진 1동 밥 공장’, ‘무진 2동 밥 공장’ 이렇게 동별로 나뉘어 있거든요. 여기서 생산하는 거는 국수, 옥수수면이라든가, 옥수수쌀이라든가, (중략) 그리고 옥수수로 만드는 튀김가루라는 게 있어요. 물만 부어서 이렇게 움직이면(주무르면) 떡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속도전 떡’이라고 하는데, 그냥 후딱 만드

62) 북한이탈주민 참여자\_청진1의 구술 녹취록 중, 7쪽에서 인용한다는 의미임. 녹취록 안의 내용 중 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의 부연 설명, 중괄호 안의 내용은 연구자의 말이다.

는 떡이니까. 또 밀이 또 많잖아요, 북한에. 밀도 가지고 가서 밀가루로 바꾸던, 밀떡으로 바꾸던 바뀌오고.(중략) 근데 줄을 꽤 오래 서 있어야 해서. 교환할 옥수수 자루를 돌려매고 새벽부터 가서 앉아 있는 거죠. ((나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운영이 되었나요?)) 네. 여기는 그래도 계속 돌아가는 거였어요. 이미 생산돼 있는 것을 교환해 주면서 수수료도 조금씩 내고. (참여자\_평양1: 4-5)

밥공장에 교환하러 갈 때, “우리 국수 몇 kg 바꿔야 되는데 누구엄마 같이 갈래?” 이렇게 하면 “어 나도 바꿀 거 있어요. 나는 밀 바꿔야 돼.” 하면서 엄마랑 둘이서 같이 가는 거죠. (참여자\_평양1: 16)

## (2) 전문식당과 가족식당의 차이, 그리고 주민활동

- 현재 북한에는 거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구내식당 형태의 ‘가족식당’은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북한 이탈주민들은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을 가족식당으로 이해했고, ‘○○○ 전문식당’과 같이 이름에 ‘전문식당’을 쓰거나 규모가 큰 식당을 전문식당으로 이야기했음.

동네에 이웃들이 같이 모여서 밥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없죠. 그냥 누구네 집에서 먹던가. 아니면 동네 마당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각기 자기 집들에서 먹을 게 생기면 “이거 먹자” 이런 식으로 모여서 마당 같은 데서 먹지. 식당 같은 분위기는 없었어요. (참여자\_평양1: 6)

전문식당하면 무슨 무슨 전문점 ‘매기 전문식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중략) 제 생각에는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을 가족식당으로, 그리고 좀 큰 규모의, 아까처럼 면옥이든지 뭐 매기탕 집, 이렇게 큰 규모로 하는 것을 전문식당으로 칭했을 것 같아요.(참여자\_평양1: 5)

- 평양의 경우, ‘옥류관’, ‘평양면옥’, ‘대동강면옥’, ‘함흥면옥’ 등의 전문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민반이나 직장에서 공급한 표(식권과 유사)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주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를 모아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 이웃과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전문식당은 국가에서 운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싶을 때 가서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표를 받아야 먹는 구조예요. 면옥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민반에서 주거나, 아니면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한 장씩 주거나 해서 가서 먹는 거죠. (중략) 가족식당은 거기는 표가 되게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평양면옥이나 이런 데는 나 하나만 가던가 엄마 혼자만 가야 됐다면, 이런 데는 식구 수별로 주니까. 우리가 네 식구라면, 4장을 주니까 같이 가는 거죠. 네 명이 다 한 번에.(참여자\_평양1: 5-6)



## 2) 공동 생산시설

-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 북한에서 거주했던 주택 구획(소구역)에 생산시설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가내작업장이 39명, 경공업장이 26명, 식료품공장이 48명, 지방산업공장이 27명으로 나타남.
- 생산시설 중 하나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67명으로 높게 나타나, 남한의 주거 단지와는 대비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표 4-6> 공동 생산시설의 존재 여부

구분	“유” 의 빈도
가내작업장	39
경공업장	26
식료품공장	48
지방산업공장	27

### (1) 경공업장, 식료품 공장 등 구역 산하 국영공장의 역할

- 주택소구역의 경공업공장, 식료품 공장은 구역 산하로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며, 인근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다수 배정되어 정규 직원으로 일함.

식료품공장은 구역마다 있고, 그건 구역 산하로 돼가지고 공공기관이죠. (중략) 주민공급용으로는 명절 때마다, 415, 216, 뭐 이렇게 부르는데, 김일성 주석 생일이나, 김정은 위원장 생일 때, 그런 때, 과자, 사탕 한 봉지씩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공급이 되고. (참여자\_평양2: 5)

식료품 공장 같은 건 딱 직원처럼, 정규직원처럼 일하죠. (중략) 북한은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이 배정이 되는데, 대부분은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를 하고, 군대 입대 안 하는 친구들을 구역산하 공장이라든가, 구역산하 시설 사업소라든가, 그런데 노동자로 배치를 해주죠. (참여자\_평양2: 6)

선교 편직공장이라고, 2002년도에 김정일이가 왔다 간, ‘시범’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편직공장에서 일했어요. (중략) 졸업하는 친구들을 다 막 무리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꼭 우리 학교에서 졸업한 같은 친구가 아니라고 해도 다른 학교에서 졸업한 친구들이 있어서 한 작업반이 26명 정도 됐는데, 보면 이제 또래들이 네, 다섯명 정도 있는 거죠. (참여자\_평양1: 8)

### (2) 가내작업장의 역할과 주민 활동

- 북한에서 결혼 후 출산 한 여성들은 부양자의 자격을 얻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데, ‘가내반’으로도 불리는 가내작업반은 소구역 내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두여성(전업주부)과 연로보장 노인들이 부업식으로 참여하는 조직임.

- 가내작업반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두부, 비지, 국수와 같이 분쇄나 가공이 필요한 식품, 의복류, 신발 깔창, 농민모와 같은 생필품과 ‘유휴 자재’ 등을 이용해 생산한 ‘8.3인민소비품’<sup>63)</sup> 등이며, 작업장이나 집에서 구성원들이 모여 만들기도 하고 집에서 각자 만들기도 함.
- 청진에서 온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특히,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이 중단되면서 생계를 위해 가내작업반 활동에 참여하는 가두여성들이 많아졌으며, 주거단지 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요구되는 상황임.

결혼을 하고 나면 여자는 부양자가 되는 거예요. (중략) 결혼을 했을 때까지도 인정이 별로 안 되는데, 애를 낳으면 주로 일하는 사람은 세대주니까, 나는 부양자다 이렇게 해서 사직서를 낼 수 있어요. 공장에다가. (참여자\_평양1: 9)

엄마들이 대여섯 명이 모여서 이불솜을 튼다고 하는데, 재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전기로 하는 분쇄기라고 해야 되죠. 우리 동네는 특히 두부를 해 먹는 집들이 많았어요. 콩을 불려가지고 갈아서 두부를 하든, 순두부를 하든, 비지를 해 먹든 하는데. 그런 거를 집에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가내작업장에 가서 한 번 돌려오는 거죠. 그 콩 불린 키로 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불하는 거죠. (중략) 가내반은 국가에서 배정을 해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직장 일을 하지 않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부업식으로. (참여자\_평양1: 6)

가내작업반은 가내협동관리소라는 게 있어. 신발 깔창이랑, 농민모랑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를 가내사무실에 와서 수매해요. 그러면 사무실은 1, 2전 붙여서 가내상점에다 내다 놓고 팔아요. (중략) 위연 가내반, 연흥 가내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집에서 모여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 각기 제 집에서, 집에 재봉틀은 다 거의 다 있으니까. (참여자\_혜산2: 9)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기업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화학섬유공장, 그렇게 큰 공장이, 정말 하루도 멈춤이 없이 그렇게 돌아가던 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굴뚝에 거미줄이 다 썼어요. 노동자들이 다 일도 못 하고 (참여자\_청진1: 10)

학교도 고난의 행군 싹 들어가면서 다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살지, 어떻게 하겠냐 하고, 그거를 동사무소에랑 두루두루 아는 데다가 물어보니까, 8.3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3이라는 게 가내반 그거거든요. 그래 구역행정위원회라는 데를 가서, 허가서류를 다 떼와서, (중략) 그다음에는 할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하고 돈 있는 사람은 돈도 조금씩 내고, 그래서 평남도에서 왕골을 큰 트럭으로 가져다가 그다음에는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20~30명이서 깔모자 만드는 거예요. 왕골을 짝 훑는 조가

63) 북한에서는 ‘8.3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을 장려해 왔는데, 이는 1984년 8월 3일, 평양에서 열린 ‘전국 경공업 제품 전시장’에서 김정일이 부산물과 폐기물을 이용해 생활필수품을 만들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임. 『조선선보』, 2006년 11월 28일.

있고, 동그랗게 다발처럼 엮는 조가 있고, 제봉하는 조가 있고. (참여자\_청진1: 9)

처음에 할 때는 장소를 우리가 물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크잖아요. 45평짜리 얼마나 크겠어요. 큰 집에서 모두 한두 명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게 하다가, 조금 이제는 좀 되니까 동사무소에서 건물들이 빈 게 많은 거예요. ((단지 내에?)) 네, 그런 빈 그런 건물을 하나 빌려줘 가지고 거기서도 하고 그랬어요. (참여자\_청진1: 10)

### 3) 사상·교양시설

-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주거지의 경우 선전실이 별도의 건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안에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명 중, 거주했던 주택 구획(소구역)에 선전실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79명, 동사무소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88명이며, 선전실과 동사무소 중에 하나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96명에 달함.
- 따라서 사상·교양시설은 다른 봉사시설들에 비해 비교적 유지 및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표 4-7> 사상·교양시설의 존재 여부

구분	“유” 의 빈도
선전실	79
신문도서열람실	40
어머니교양실	31
아동교양실	33
동사무소	88

#### (1) 선전실의 역할과 주민활동

- 북한에서 선전실은 각 학교, 공장, 기관, 기업소, 동사무소 마다 운영이 되고 있으며, 각자가 속한 소년단,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여성동맹 등의 조직에서 사상·교양활동을 전개함.
- 주거지 내에서의 선전실은 동사무소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곳에서 동소속의 여성동맹원과 연로보장 노인들 수백명이 주에 1, 2회 모여 보통 2시간씩 주어진 과업에 대한 지시사항과 사회주의적 생활(마음가짐, 옷차림, 행동)을 전달받음.

선전실은 공장에도 있고 동네에도 있어요. 동사무소에. 동네 선전실은 여맹하고, 연령이 많거나, 또 마을 생활을 하는 당원들이 있어요. 아니면 군대 나갔다가 장애를 가지셨거나, 이런 분들이 마을회에 소속이 되는 거죠. 매주 모여가지고. 명칭은 ‘무슨 선전실’, ‘강연회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략) 한 번 모임 때는 100명은 그냥 훨씬 넘죠. 예를 들어서 무진 1동이 한 번에 모이니까 한 64반까지 나가는데. 한 인민반에서 못해도 10명 정도 넘게 간다고 봐도. 그러니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하긴 10명이라는 게 여맹 숫자만이니까. 거기에다 또 당원들까지 있으니까 100명은 후딱 넘죠. (참여자\_평양1: 10)

매주 모이면 그래도 보통 2시간 정도. 그때 그때 김정일이 이런 방침을 내세웠다. 교시를 내렸다 하는 것들에 대한 전달을 해요. 주로 담장을 쳐라. 허물어라 하는 집 주변 환경 바꾸는 것이 되게 많고요. 강 하천 사업들, 환경미화 사업이라든지, (중략) 강 하천에 이것저것 투척하고 하다 보니까 강의 높이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 올 때는 아무래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넘칠까 봐. 오물도 건져내고 그런 작업을 계속 시키는 거죠. (중략) 또 김정일이 요즘에 어디를 방문했는데. 뭘 잘했다고 했고 뭘 잘못했다고 했다. 우리 동네도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참여자\_평양1: 11)

여기 모임 때는 작업복 안 입고 가고 대체로 그래도 외출복. 셔츠라든지 원피스라든지 이렇게 복장을 깔끔하게 하고 가고. 꼭 배지를 달죠. 김일성 배지를 꼭 달죠. 그거 안 달면 또 큰일 나요. (참여자\_평양1: 11)

## (2)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연구실의 역할과 주민활동

-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혁명 역사 연구실은 전시관 또는 박물관의 성격으로서, 건물 입구 전면에 김일성의 조각상이 있고, 김일성의 업적에 대한 자료들을 전시해 놓은 시설임. 선전실과는 별도로 존재하여 강연회, 사상학습이 이루어짐.

김일성 혁명 역사 연구실은 별도로 따로 있죠. 선전실이 같이 감히 못 있지. 존엄에 대한 문제니까. 연구실은 어찌 보면 여기 오니까 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에요. 성스럽고 하는 게 김일성이가 신이니까 그쪽은. (중략) 박물관 같이, 들어가면 김일성의 사진이 이렇게 전면에 있고, 그리고 김일성 반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김일성이가 몇 살부터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북한 사람을 선동을 하는 거죠. 김일성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걸 선동을 해서 그 머리에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게. (참여자\_혜산3: 6)

아파트 살 때 거기는 압록강 옆에 그 건물이 엄청 컸어요. 한 4층인가. (중략) 북한에 방방곡곡에 다 있죠. 작은 곳이라고 해도 좀 크기가 작을 뿐이지. 그건 없으면 안 되니까. 김일성이가 신이니까. (중략) 저희 아파트에 있는 언니가 거기 강사를 했거든요. 해설원.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혜산에서 인물이나 모든 게 다 출중하고 이런 사람들이 해요. (참여자\_혜산3: 7)

#### 4) 배급시설

- 북한의 봉사시설 중에는 배급제라는 특수한 경제 제도를 바탕으로 한 식량공급소, 연료공급소,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 등의 배급시설이 존재함.
- 식량공급소에서는 쌀, 옥수수 등의 곡류를 공급하며, 연료공급소에서는 가정에서 겨울철에 사용할 탄과 차량용 연료를 공급하며, 식료품상점에서는 사탕, 과자, 간장, 된장, 콩기름 등의 식료품을 공급하고, 공업품상점에서는 속옷, 치약, 칫솔, 세수비누, 빨래비누, 수건 등의 공업품을 공급함.
- 배급은 한달에 1, 2회 이루어지며, 배급을 받는 날에는 줄을 장시간 서 있어야 해서, 이웃과 같이 가기도 하고 줄에 서 있는 동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함.
-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의 경우 식량, 식료품, 공업품의 배급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나,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식량공급소,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이 존재는 하였으나, 경제난 이후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음.
- 지방 도시의 경우, 아파트 저층에 위치한 식료품상점, 공업품 상점이 장기간 운영을 안 한 채 비어 있다가 개인집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발생함.

<표 4-8> 배급시설의 존재 여부

구분	“유” 의 빈도
식량공급소	78
연료공급소	32
식료품상점	86
공업품상점	70

우리가 김일성이 죽고 1996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지방은 그때부터 모든 공급들, 식량 배급 주던 그런 것들이 다 끊겼거든요. 그래도 평양만은, 유엔이든 대한민국이든 지원이 들어오잖아요. 쌀도 그렇고 때에 따라서 굴도 들어왔었고. 그런 거를 맨 처음으로는 군부대에 돌리겠지만. 그 나머지로 평양 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거죠. 매달 1인당 몇 그램씩 책정을 해서 식료품 상점, 공업품 상점, 수산물 상점,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거든요. (참여자\_평양1: 1)

평양에서 배급은 그래도 1년에 한 9개월은 다 받았거든요. 주기적으로 매달 15일이면 15일, 정한 날짜에 주질 않아서 그렇지, 주기는 줬단 말이죠. 나오기 전 까지도. (중략) 식료품 상점에서는 과자, 사탕, 간장, 된장, 이런 식품에 관계된 거는 식료품 상점에서 주는 거고. (중략) 그리고 공업품 상점에서는 속옷 같은 거. 치약, 칫솔, 세수비누, 빨래비누, 수건, 이런 것들을 주는데 자주 주지는 않았고, 자주 주는 건 식료품이었던 것 같아요.(참여자\_평양1: 2)

동네에서 이웃을 제일 많이 만나는 곳은 아무래도 식량공급소에서 많이 부딪히긴 하죠. 여기가면 줄을 서 있어야 되니까. 줄을 되게 길게 서 있어야 되니까. 몇 시간씩 줄을 서니깐 줄에 서 있으면서 이웃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서 옆집이 오면 이리로 오라고. 새치기 시키고 그러다가 걸리면 또 혼나고.(참여자\_평양1: 12)

91년도까지 배급을 조금씩 줬어요. 91년도에 딸을 낳았는데, 해산을 하니까 산몸이라고 쌀을 다섯키론가 받았어요. 그 후에는 나라에서 이렇게 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뭐 감자도 배급을 주고, 그 감자를 배급 주는 것도 감자밭을 막 떼어주고 거기서 감자를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키로를 파면은 그걸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 후에는 전혀 없었어요. (중략) 김일성이가 94년도에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잘못되기 전부터 힘들었어요. (참여자\_혜산3: 9)

우리는 위연지구에 아버지 기업소가 있다가니까. 당에서 그 간부 아파트라는 데를 배정해줬어요. 77년도에 아파트로 와서 그때부터 쪽 살다가 (중략) 그 1층이 원래 공업품상점을 하던 건물인데, (중략) 내가 중학교 때부터(1980년대 후반)는 별로 상품이 없어서. 비워놓는 것도 몇 년 비워놨어요. 고난 행군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게 비기 시작했거든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됐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사람들 배급이 끊겼던 것 같아요.(참여자\_혜산2: 10)

상점이 상품이 없고 하니까 거의 다 폐기되고 그다음부터 개인 집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엄마 사는 아파트 1층에 내가 장사를 하니까 돈 주고 샀죠, 그집을. (중략) 층계 있는 한 쪽이 1호부터 4호까지, 다른 쪽이 5호부터 8호까지 있고, 그 들어가 첫 집은 내가 쓰고 살았거든요. (참여자\_혜산2: 3)

#### 4) 상업·업무시설

- 1990년대 중반의 북한 경제난 이후,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업·업무시설의 기능은 축소된 반면,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 자본이 투자된 영리 목적의 문화·위락시설, 편의시설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음.
- 문화·위락시설, 편의시설의 개인 소유에 대하여 국가 기관·기업소의 명의를 대여해 주면서, 즉 ‘사회주의 모자’를 씌워 주면서, 부분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가 사실상의 세금을 수취하고 있음.<sup>64)</sup>
- 특히, 서비스업 관련 부분에서 개인투자 사업이 확대되면서 주요 도시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소비와 문화 공간이 생겨나고 있는데<sup>65)</sup>, 설문조사 과정에서도 이발관(미용실), 당구장, 헬스장, 오락장, 호프집, 노래방, 식당 등의 경우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했다고 응답한 참여자가 많았음.

64) 양문수,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북한경제리뷰』, 2016년 1호, 2016, p.26; p.30.

65) 조정아,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 『KDI 북한경제리뷰』. 제19권 8호, 2017.

<표 4-9> 상업·업무시설의 존재 여부

구분	“유”의 빈도	구분	“유”의 빈도
한증탕(목욕탕)	74	오락장(빠짱코)	15
이발관(미용실)	89	호프집(맥주집)	35
탁구장	42	노래방	18
당구장	19	종합진료소	85
롤러스케이트장	13	고품수매소	63
수영장	31	저금소	50
헬스장	5	종합편의수리소	71

- 특히, 북한에서 한증탕과 같은 목욕시설을 주민들에게 인기있는 시설인데, 설문에 응답한 100명 중 거주했던 구획(소구역)에 한증탕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74명으로 높게 나타남.
-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한증탕은 사적 교류장소로서, 이곳에서는 가족에 관한 대화, 다른 집에 사는 얘기, 맛집 정보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눔.

제일 많이 가는 게 목욕탕이죠. 북한에는 대중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기 모여서 수다 떨고. 한증탕에서는 사적인 대화만 해야 돼요. 정치적인 대화, 사상 이런 거 안 되고. 그래서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북한 말로 쌍소리라고 하죠. 여기서는 야한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는 안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남편들 홍보고, 시어머니 홍보고 그런 것만 하지 절대 그런 정치적인 얘기는 절대 안해요. (중략) 식당들 얘기도 많이 하고, 누구네 집에 아들은 어떻게 딸은 어떻게. 그냥 그런 얘기. (참여자\_평양1: 13)

저희 엄마는 매니아셨어요. 일주일에 두, 세 번은 갔던 거 같아요. 자주 갔어요. 동원 한 번 갔다 오면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남한)처럼 한의원이 되어 있거나 정형외과가 되어 있으면 물리치료를 받는다가 뭐 수액이라도 한 번 맞는다면 할 텐데.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오로지 한증탕에서 그냥 허리 지지고 어깨 지지고 이러면서 그냥. (중략) 북한에는 석탄으로 한증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뻘건 그냥 불덩이가 있는 그대로 그 쇠 통 같은 데 이렇게 해서 완전 오리지날로. (참여자\_평양1: 13)

한증탕은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느 공장들에서 하는 것도 있고. 요즘은, 예를 들어서 ‘무진 목욕탕’이면 국가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것도 500원(북한돈) 이었고, 그리고 다른 공장기업소 가서 하는 거는 야매 가격인데 이것도 500원이었고. 식당이 70전 정도인데 500원이면 비싼 편이에요.(참여자\_평양1: 13)

### 3. 봉사시설 외(집, 현관, 마당, 장마당)에서의 주민활동

- 100명의 설문조사 결과, 북한에서 이웃과의 대화나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했던 곳의 1순위로 ‘세대별 집안에서’로 응답한 사람은 56명, ‘주거동(집) 앞마당에서’로 응답한 사람은 26명이었으며, 두 장소를 순위에 하나라도 포함시킨 사람은 ‘세대별 집안에서’가 92명, ‘주거동(집) 앞마당에서’가 82명에 달함.

<표 4-10> 이웃과의 대화나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했던 곳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에 하나라도 포함
세대별 집안에서	56명	23명	13명	92명
복도, 계단, 홀에서	3명	4명	4명	11명
주거동 1층(집 앞) 현관에서	5명	17명	17명	39명
주거동(집) 앞마당에서	26명	40명	16명	82명
구획(소구역) 내 봉사시설에서	2명	5명	14명	21명
기타(장마당 등)	7명	4명	8명	19명

#### 1) 세대별 집안에서의 주민활동

##### (1) 공적 공간으로서의 집

- 북한에서 인민반 회의나 동(행정동) 여맹원들의 생활총화, 호상비판 벌어지는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집의 역할은 여전히 존재함.

결혼하고 부양자로, 무직으로 한 자기 한 세 살까지인가 그냥 있었는데, 그냥 무직으로 두자 해요? 동여맹에서 자꾸 나오라서 그다음부터 동여맹에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인민반 안에 집에서 노는 부양자(전업주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생활총화를 해야 돼. 개인 집에, 초위원장네 집에 모여서. (참여자\_혜산3: 11)

생활총화는 그 주간에 나의 결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맞는 말씀. “아버이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청년들이 바른 생활을 하고..” 이런 말씀을 했다면, 근데 나는 이 말씀에 어긋나게 옷차림을 불결하게 하고 다녔다, 이 원인은 조금 헤이된 관점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결함이 나타나지 않도록 반성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호상비판을 해야 돼요. 같이 하는 어느 사람이든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하면서 눈을 찡긏긏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나 해라 이런 거죠. 이런 게 생활총화인데, 어떻게 보면 형식상이라고 해야 되죠. (참여자\_평양1: 15)



(2) 사적 공간으로서의 집

-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이웃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주된 공간은 집임.
- 조정아(2017)<sup>66</sup>)에 따르면, 혜산 출신 탈북민의 증언에서 혜산 주민들의 일반적인 여가활동 방식을 알 수 있는데, “한 달에 세 번이고, 집안에 들어앉아서, 술잔 놓고 음식 놓고 상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증폭기에 대고 정신 나가게 새벽 대여섯시까지 노는데, 형제들끼리는 남한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 모였을 때는 못 부르고, 그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노는 재미가 좋았다”고 함.

여기처럼 뭐 전기가 계속 들어와서 tv를 본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해서. 그러니까 대체로 옆집에 가서 놀든가, 우리집에 와서 놀든가, 이런 식으로 동네에서 우리 집하고 옆집이 되게 잘 모이는 집이었어요. 커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자꾸 해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콩을 닦든 강냉이를 닦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요리를 할 때,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같이 먹고 놀고. 엄마들이 수다 떨고. 제가 동네 돌아다니면서 ○○엄마, 우리 집에 오래요. 우리 엄마가 떡 하겠대요. 오래요. 이랬거든요. 재미있었던 일들로는 그냥 그런 기억들이 생각이 나죠. (참여자\_평양1: 19)

- 최근 들어 주목할 점은 고난의 행군을 전, 후로 하여 북한에서 배급이 중단되면서, 생계를 위해 사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아졌으며,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안전한 집이 이러한 비법활동의 주된 공간으로 활용됨.

밀수하는 사람들을 거래를 했어요. 내가 할 때는 약초를 많이 했어요. 오미자, 잣, 그 깨말이랑 이런 거. 그런 거를 밀수꾼들이 가지고 중국에다 넘기죠. 약초가 비싸서, 오미자가 돈 많이 받았어요. (중략) 혜산 장마당에 내려가면 그 ‘데꼬’들이 있어요. ‘데꼬’라는 게, 손 거처서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 걷어 가지고(모아서) 우리집에 올래가(데려가). 그러면 우리 집에 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앉아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저울질해서 팔거든요.

내 수고비는 그걸 연결해 주고, 또 중국 밀수품을 혜산 장마당에서부터 끌고 올라오기도 해서, 우리집에 가질러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또 혜산 장마당 가격하고, 우리가 날라다 주는 가격이 그 차이가 한 킬로당 20~30원씩 먹어요. 저울질을 잘해서 가지면 한 500g이라도 만 원이 오고 가거든요. 옛날돈 만원이면 큰돈이지요. 입쌀이 그때 80원 했던가. 그 때 만원이면 우와 잘 벌었네 이랬거든요. (참여자\_혜산2: 14)

66) 조정아·최은영, 2017.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 2) 주거동(집) 현관, 앞 마당에서의 주민활동: 마을과 거리 꾸리기

-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마을과 거리 꾸리기’는 북한 주민들이 이웃과의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인민반 활동 중에 하나임.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세대당 한 사람씩 나와서 거주하고 있는 집 주변과 담당구역 도로의 청소, 유지·관리, 조경 등의 활동을 수행함.
- 등교나 출근 전에 수행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인민반회의, 국가건설동원, 농촌지원 등 인민반의 다른 활동들에 비해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 경험을 이야기했으며, 심층면담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공동주택의 적응을 위한 활동으로 제안하였음.

마을 거리 꾸리기는 아침에 7시까지 한 집에 한 사람씩 나와라 해서, 누구는 빗자루, 누구는 삽, 누구는 고갱이를 들고 나와서 청소도 하고, 돌이 삐쩍 나온 게 있으면 고갱이로 파가지고 평평하게 한다거나. 평양에서 우리집 쪽은 육각 블록으로 된 그런 도로였어요. 차도로 자체가. 블록 사이에 틈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비오고 하면 씻겨 내려가니까, 흙 같은 거 모래 같은 거 채워 넣는 작업도 하고, 그리고 블록 혹시 깨진 게 있으면 교체하는 작업도 하고. (중략) 그리고 회칠, 벽에 칠했던 게 벗겨지면 또 보기 안 좋으니까. 주기별로 칠해야 되고. 그리고 집 주변에 뭘 심으라 하면, 또 채송화 같은 거, 봉선화 같은 거, 꽃 심어라 할 때 또 심어야 되고. (참여자\_평양1: 17)

아침에 눈만 뜨면 도로 닦기를 나가요. 거기는 흙도로였는데, 비만 오면 움푹 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또 자갈을 붓고 위에다가 또 흙을 씌우고. 또 비가 오고 차가 지나가면 또 도로매기(원상태)가 돼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그걸 하는데, 그러면 아줌마들이 앉아서 수다도 떨고 그다음에 남편 욕도 하고. 거기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방 이사 갔어도 한두 번을 나가고 나면은 자기하고 이렇게 개성이 맞는 아줌마가 있어요. 그러면 친해지죠. 친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또 음식도 가지고 오고 또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참여자\_혜산3: 11)

여기서는 청소부를 따로 두니까. 기껏 만나는 게 경비아저씨고. 동네 이웃이 누가 사는지, 2년이 돼가도 몰라요. 그렇게 안 살다가 너무 이렇게 사니까 그게 너무 차이가 커요. (중략) 더 소외된 것 같고, 여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웃하고 나눔이 너무도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마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참여자\_혜산1: 18)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거리청소하는 거라든지, 북에서 했던 활동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강제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셔서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혼자 있다보면 좀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고립감도 커지고. 어떤 역할을 줘서 책임감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아 내가 일부가 됐네’ 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너무 안주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아쉽죠. (참여자\_경성1: 9)

### 3) 구획(소구역) 외부에서의 주민활동: 농촌지원, 건설동원

-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국가건설동원과 농촌지원은 ‘마을과 거리 꾸리기’와 함께 북한 주민들이 이웃과의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하는 인민반 활동 중에 하나임.
- 국가건설동원은 ‘사회동원’으로도 불리며, 걸어서 30분에서 1시간 거리의 철길, 건설 현장, 강·하천 등에서의 지원 활동이 주를 이루며, 주민들은 국가건설동원을 위한 공사자재를 수집할 때, 이웃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이웃과 대화나 교류를 활발하게 함.
- 농촌지원은 인민반의 가두여성이 중심이 되어, 거주지 인근 협동농장으로 모내기, 김매기, 추수동원 등의 지원을 나가며, 한번 가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웃과 친해지게 되는 계기로 언급하는 참여자들이 많았음.

사회 동원이라고 하면 철길 보수인데, 가서 철길은 샅으로 떠서 올리는 작업을 할 때도 있고, 또 철길에 보면 자갈들이라고 해야 되죠. 뽀쪽뽀쪽한 파쇄석 같은. 그런 차돌맹이들을 대동강 쪽에 나가서 주워오는 거예요. 주워오면 대동강 하류 쪽으로 락랑구역 쪽에 모래 채굴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큰 돌을 한마로 깨는 거예요. 한마라는 게 아주 큰 망치 같은 건데. 그걸로 깨서. 그거를 한 집에 한 바케스씩 내는 거죠. 들통으로 한 들통씩.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같이 들고 다니기가 좋으니깐요. 그런 사회동원들을 많이 나가죠. 강하천 작업 그런 것도 많이 나갔고. (참여자\_평양1: 17)

농촌 지원을 다 같이 가요. 혜산에 있을 때도 갔고, 백암에 있을 때도 갔어요. 애 때도 가고, 여기는 애 때 가고(혜산은), 여기는 시집가서 아줌마 때(백암). 심을 때도 가고. 김매기 할 때, 가을걷이 할 때, 그럴 때는 꼭 갔어요. 여기는 백두산 지역이라 주산물이 감자, 밀, 보리, 이렇거든요.

(중략) 가면은 인민반 사람들 다 같이 가요. 한 30분 걸어서. 가면서 계속 얘기도 하고, 그렇게 가면 하루 종일 일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안 친해질 수가 없어요. (참여자\_혜산3: 18)

감자 밭에 가면, 동작이 빠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개 엄마 저 농장원들이 안 볼 때 감자를 풀숲에다가 좀 숨겨라. 갈 때 가지고 가게.” 아줌마들이니까. 하하하. 그러면 또 아주 하나가 번개같이 동작을 해서 숨겨요. 그러면 올 때 가지고 와서 같이 먹고 그러지. (참여자\_혜산3: 18)

#### 4) 장마당에서의 주민활동

- 탈북민의 증언에 따르면, 고난의 행군 이전에는 배급시설에서 이웃들이 대화나 교류를 활발하게 나누었지만, 배급제의 와해로 인하여 현재는 장마당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파악됨.
- 주택소구역의 업무시설로서 저금소, 종합편의수리소, 약방, 종합진료소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자전거, 신발, 시계 등의 수리와 의약품 구입은 장마당을 이용했다고 응답하는 참여자가 많았음.

배급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고난행군 이전에는 배급소가 이웃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배급 타는 날이면, 내가 타는 날에 또 누구누구네도 또 그렇게 타서 보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네는 어느 날 배급 타?” 그러면, “우리는 어느 날이에요,” 하고. 우리는 어느 날이다해서 가면 우리 동네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인사도 하고. 또 그리고 그 배급소에 가자마자 재깍 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저 줄을 서 있으니까 거기서 또 환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니까 누구네는 어떤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못된 일도 있구나 이런 거 아는 거예요, 정보를. 그리고 어디로 가니까 뭐가 싸더라 무슨 뭐 어찌더라 하면서 이려고.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서로 알려면 거기(배급소)가 좋은 거예요. (참여자\_청진1: 14)

배급이 끊기고 나서는, 그다음에는 장마당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장마당에 갈 때, 물건 사러 가거나 할 때, 이웃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죠. 그저 그 장마당에 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끼리 앉아서 이렇게 팔고 사고 했는데, (중략) 시장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교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때 나도 보니까. (참여자\_청진1: 15)

잘 살았을 때는 식료품 상점, 공업품 상점이나 종합편의수리소 이런 것들이 다 그 역할들을 하고 운영이 되었는데, 다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고난의 행군 겪으면서 비기 시작하고 다 없어지고, 그게 다 장마당으로 나간 거예요. 수리소나 뭐 이런 게 다 구두 수리고, 시계 수리고 다 시장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동네에 있던 건 다 없어졌어요. 물건도 거기서 다 사고. (참여자\_청진1: 20)

## 제5장. 북한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형성요인





### 1. 북한 지역공동체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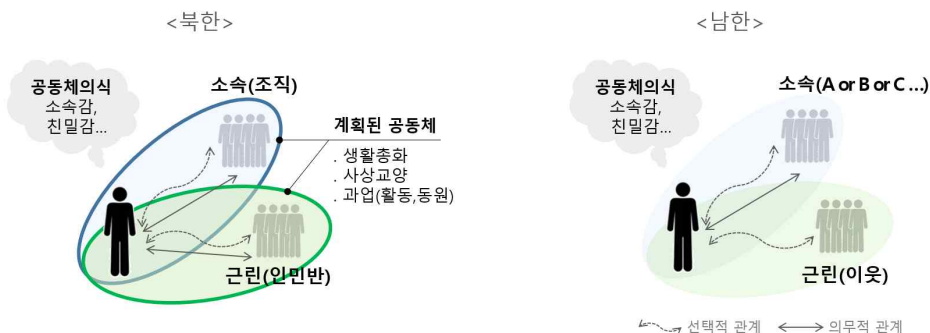
- 북한의 지역공동체는, 선행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된 공동체(planned community)에서 시작되었으나, 국가적으로는 경제적 위기에 의해, 개인적으로는 제약조건 하에서 개인의 의사결정에 의해, 체화되거나 변형되었음. 따라서 약화되긴 했으나 인민반 등의 시스템은 여전히 존재하며, 의무적 관계와 선택적 관계, 공적 관계와 사적관계가 중첩되어 있는 강제된 공동체(imposed community)를 형성함을 알 수 있음.

((북한에서도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나요?)) 북한은 다 공동체잖아요. 일하는 곳도 공동체고, 탁아유치원도 공동체고. 모든게 공동체죠. ((그런 용어도 사용하나요?)) 개인이 없으니까.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큰일 나. ((이게 어떤 느낌을 주세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게 의무적으로 그래야 되는가 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없고.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걸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거지. (참여자\_파일럿\_청진1: 6)

인민반이 공동체인면서도 가장 이웃들이기 때문에, 진짜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고. 바쁜 일이 있을 때도 이 이웃이 와서 도와줘야 되고 또 이웃하고 관계도 좋게 지내야 다 비법하며 살아도, 모든 걸 많이 ((눈감아주고)). (중략) ((그런데 굉장히 친한데 언젠가 또 어디 가서 나를 밀고 할 수도 있다는 게, 조금 불편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건 있었죠. 사는 게 항상 누군가의 관계에서 너무도 가깝지 말고, 너무도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다가는 꼭 헤어지고 뭔가 거기서 물리면 더 힘들다고 계속 조언도 받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수시로 정말 정을 나누고 깊은 관계까지 들어간 사람들도, 결국은 10년, 20년 지기로 알던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도 들어갈 만큼 들어가고, 더 안 들어 가거든요. (참여자\_혜산3:17)

- 한 개인이 갖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소속감, 상호영향의식, 친밀감 등의 동일한 범주로 이루어질 것임. 그러나 개인이 속한 공동체는, 특히 근린을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경계와 의무가 없고 선택적 관계만 있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1반, 2반과 같이 20~40가구로 구성된 인민반에 소속되어 과업 등의 의무가 주어지고, 관계에 있어서도 의무적 관계와 선택적 관계가 공존함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북한 지역주민 개인이 갖는 지역공동체의 강도에 대한 인식 즉, 지역공동체 의식은 보편적인 범주에서 이루어질 것이나, 이를 형성하는 영향요인은 다를 것임.

<그림 5-1> 북한 지역공동체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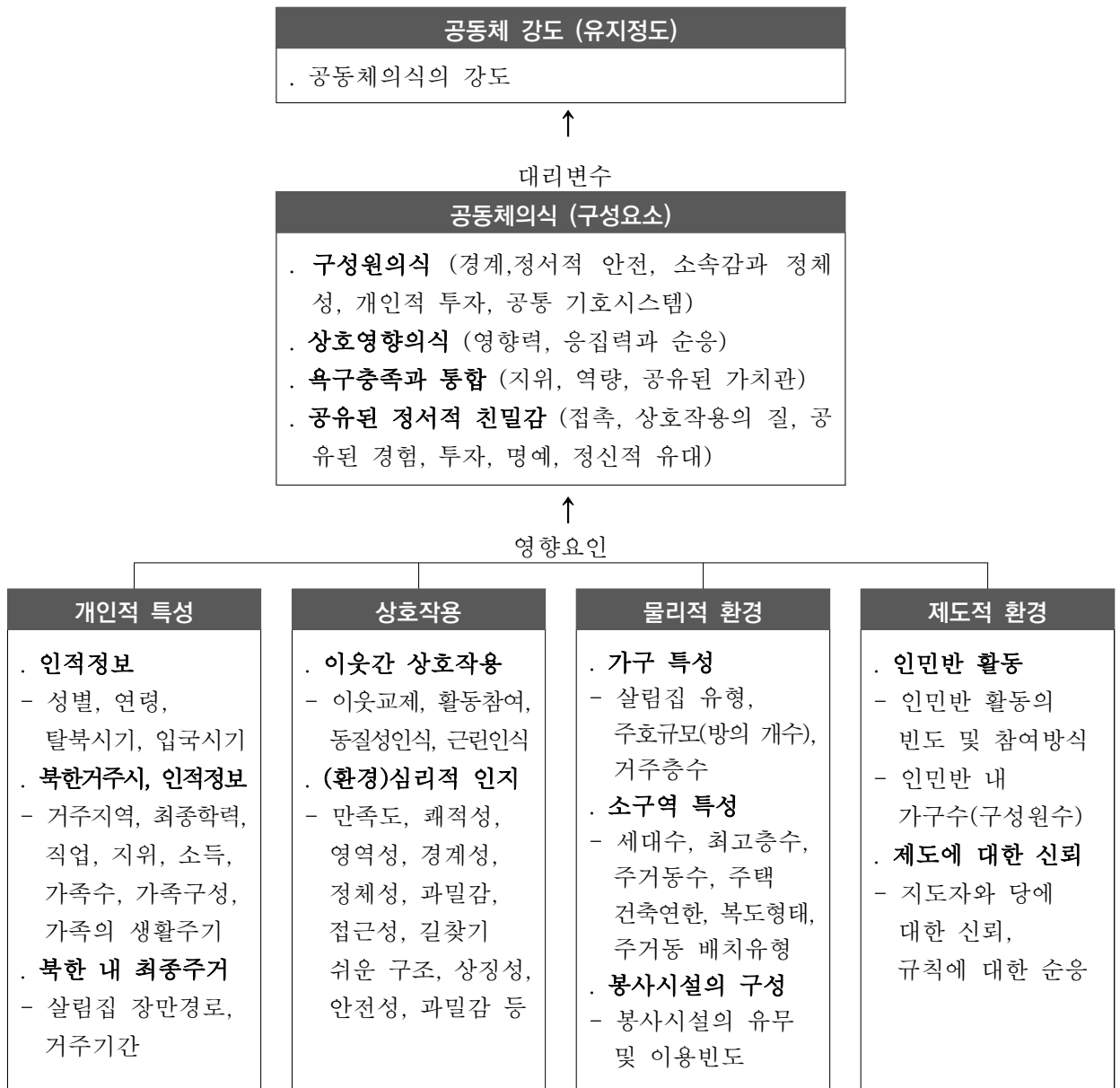


## 2. 북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요인

### 1) 분석틀(변인구성)

- McMillan & Chavis(1986)에 의하면, 공동체의식은 공동체의 형성, 유지 및 강화, 참여에 영향을 줌. 따라서 공동체의 형성은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할 수 있음. 북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요인을 알기 위해, 종속변수로 지역공동체의식을 측정하여 공동체의 강도(유지정도)를 유추할 수 있음. 그리고 북한의 지역공동체는 강제된 공동체로 주어진 공동체의 경계와 의무가 있음. 따라서 독립변수로 선행연구에 따른 공동체의식의 영향요인\_개인적 특성,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_에 제도적 환경을 추가로 반영했음.

<표 5-1> 북한 지역공동체의 분석틀





2) 지역공동체의식과 독립변인

(1) 종속변수 : 지역공동체의식

- 지역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4개 구성요소의 22개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했음. 측정항목은 McMillan & Chavis(1986)의 연구를 중심으로 관련연구를 참고하여 도출했음.

<표 5-2> 지역공동체의식 측정항목

구성요소	측정항목
구성원의식	1. 나는 우리 동네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2.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3. 나를 아는 이웃들이 적다.(역)
	4. 나는 우리 동네를 집과 같이 느낀다.
	5. 우리 동네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상호영향의식	1.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2.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역)
	3. 나의 행동에 대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인다.
	4. 우리 동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다.
	5. 나는 우리 동네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욕구충족과통합	1. 우리 동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2. 이 동네에 살고 있으므로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3. 내가 대화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대상을 당장 동네에서 찾을 수 있다.
	4. 우리 이웃과 나는 동네로부터 비슷한 것을 원한다.
	5. 우리 동네 사람들은 가치관(생각)이 비슷하다.
	6. 우리 동네는 살기에 별로 좋지 않다.(역)
정서적 친밀감	1.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2. 나는 우리 동네에 오래 살기를 바란다.
	3.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역)
	4.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5. 우리 동네와 이웃이 잘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6.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 이를 토대로, ‘지역공동체의식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요인점수와 요인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지역공동체의식 지수를 산출했음.
- 1차 요인분석에서 요인적재량이 0.4이하인 측정항목 3개(상호영향의식3, 욕구충족과통합4, 욕구충족과통합5)를 제외하고 2차 요인분석을 실시했음. 고유값(1 이상)과 스크리도표에 의해 3개 인자수를 결정했으며, Varimax 회전을 사용했음.

<표 5-3> 지역공동체의식 요인분석 결과(19개 항목)

변수	Factor1	Factor2	Factor3
구성원의식1		0.7127	
구성원의식2		0.5539	
구성원의식3			0.4575
구성원의식4		0.6972	
구성원의식5	0.6368		
상호영향의식1	0.7189		
상호영향의식2		0.4096	
상호영향의식4		0.6842	
상호영향의식5		0.6838	
욕구충족과통합1		0.5443	
욕구충족과통합2	0.4400		-0.4339
욕구충족과통합3		0.5718	
욕구충족과통합6	0.6313		
정서적친밀감1	0.8298		
정서적친밀감2	0.8493		
정서적친밀감3			0.5175
정서적친밀감4	0.6809		
정서적친밀감5	0.4039		
정서적친밀감6			0.4811
Variance	4.223	3.887	1.425
Proportion	0.3960	0.3645	0.1336
Cumulative	0.3960	0.7605	0.8941

n=100, KMO값:0.84, 크론바 알파값:0.90

- 요인분석에 의해 재분류된 요인별 측정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장소애착, 구성원의식, 정서적 친밀감으로 분류했음.

<표 5-4> 요인분석에 따른 측정항목 분류

요인	측정항목	비고
Factor1 (장소애착) 가중치:0.3960	우리 동네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구성원의식5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상호영향의식1
	이 동네에 살고 있으므로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욕구충족과통합2
	우리 동네는 살기에 별로 좋지 않다.(역)	욕구충족과통합6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정서적친밀감1
	나는 우리 동네에 오래 살기를 바란다.	정서적친밀감2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정서적친밀감4
우리 동네와 이웃이 잘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정서적친밀감5	
Factor2	나는 우리 동네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구성원의식1

(구성원의식) 가중치:0.3645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구성원의식2
	나는 우리 동네를 집과 같이 느낀다.	구성원의식4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역)	상호영향의식2
	우리 동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상호영향의식4
	나는 우리 동네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상호영향의식5
	우리 동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욕구충족과통합1
Factor3 (정서적 친밀감) 가중치:0.1336	내가 대화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대상을 당장 동네에서 찾을 수 있다.	욕구충족과통합3
	나를 아는 이웃들이 적다.(역)	구성원의식3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역)	정서적친밀감3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정서적친밀감6

· 요인분석에 의해 도출된, 각 요인별 요인점수에, 공분산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하여 지역공동체의식 지수를 산출했음.

$$\text{지역공동체의식 지수} = \text{각 요인별 요인점수} \times \text{가중치(공분산 비율)의 합}$$

## (2) 다중회귀분석

·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성별, 연령, 거주지역, 살림집형태, 인민반장 경험, 거주기간을 통제했음.

<표 5-5> 지역공동체의식과 독립변인

변수	Coef.	Robust Std. Err.	T	P>t	Beta	VIF	
환경심리_안전성(쾌적성)	0.180	0.040	4.48	0.000***	0.405	1.38	
환경심리_중심성	0.085	0.043	1.99	0.050*	0.190	1.19	
교제강도1(가구수_인사,대화)	-0.000	0.000	-0.41	0.681	-0.021	1.66	
교제강도3(가구수_도움,상의)	0.017	0.004	3.64	0.000***	0.235	1.49	
마을거리꾸리기출석률(비율)	-0.077	0.162	-0.48	0.632	-0.047	1.74	
건설·농촌동원출석률(비율)	0.201	0.144	1.40	0.167	0.144	1.60	
주택규모(평)	0.007	0.004	1.85	0.067*	0.162	1.32	
성별(여성=0,남성=1)	-0.100	0.116	-0.86	0.391	-0.068	1.29	
연령(현재)	0.000	0.003	0.11	0.911	0.011	1.98	
거주지역 (평양=0)	(혜산=1)	-0.286	0.152	-1.88	0.064*	-0.261	3.26
	(청진=1)	-0.173	0.137	-1.25	0.213	-0.152	3.15
	(함흥=1)	-0.370	0.200	-1.84	0.069*	-0.181	1.63
	(기타=1)	-0.394	0.162	-2.42	0.018**	-0.236	1.86
살림집형태 (하모니카=0)	(아파트=1)	-0.063	0.099	-0.64	0.526	-0.058	1.48
	(독집=1)	-0.031	0.138	-0.23	0.821	-0.017	1.17

인민반장 경험(무=0, 유=1)	0.262	0.115	2.28	0.026**	0.174	1.50
ln거주기간(월)	0.042	0.053	0.78	0.436	0.061	1.37
Intercept	-1.045	0.321	-3.25	0.002	.	.
No. of samples, R2	N=96, R <sup>2</sup> =0.5371					

\* p<0.1, \*\* p<0.05, \*\*\* p<0.01

- 상관분석을 통해 지역공동체의식과 상관관계가 높은 심리적 요인, 교제강도, 인민반활동 출석률, 주택규모를 독립변수로 분석한 결과, 심리적 요인의 안전성과 중심성, 교제강도<sup>3</sup>, 주택규모, 거주지역, 인민반장 경험여부가 유의함을 알 수 있음.
- 거주환경에 대한 심리적 인지(입구성, 경계성, 중심성, 접근성, 연계성, 길 찾기 쉬운 구조, 상징성, 안전성(쾌적성), 자연친화성, 위압감, 개방감, 과밀감) 중에서, '우리 동네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를 묻은 안전성(쾌적성)과 '동네 내에서 주민들이 모이는 활동의 중심공간이라고 느껴지는 곳이 있다.'를 묻은 중심성이 지역공동체의식과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택규모가 클수록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 이는 주택규모를 경제수준의 대리변수로 생각했을 때, 경제적으로 안정적일수록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음. 거주지역이, 혜산, 함흥, 기타지역일수록 평양보다 지역공동체의식이 낮고, 인민반장의 경험이 있을수록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관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항목인 '가벼운 인사', '간단한 대화', '같이 활동', '서로 도움', '문제 상의'를 하는 가구 수를 묻는 문항을 교제강도1~3으로 재분류했으며, 이 중에서 교제강도3(서로 돕고 문제를 상의하는 가구 수의 평균)이 지역공동체의식에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즉, 교제의 강도가 클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음. McMillan & Chavis(1986)의 접촉가설에 의하면 더 많은 교류의 기회, 교류(상호작용)의 질, 공유된 경험을 통해, 정서적 연결이 강화될 수 있음. 따라서 이웃과 친해진 동기의 1위가 '자주 보아서(43%)'인 것에서<sup>67)</sup> 알 수 있듯이 교류의 기회가 중요하나, 더불어 인사나 간단한 대화가 아닌 상호작용의 질도 공동체의식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음.

<표 5-6> 지역공동체의식과 인민반활동

변수	Coef.	Robust Std. Err.	T	P>t	Beta	VIF
인민반회의참여태도(강제-자발)	0.023	0.067	0.36	0.722	0.060	4.86
인민반회의출석률	-0.278	0.285	-0.97	0.334	-0.190	5.34
인민반회의참여태도* 인민반회의출석률	0.041	0.093	0.44	0.658	0.100	8.99

67) 북한 내에서 '이웃과 친해진 동기'는, 가까이 살아서 자주 얼굴을 보아서(43%), 인민반활동을 통해(19%), 아이들의 사귀(12%), 가장·주부의 사귀(12%), 직장·직업이 유사(11%) 순임.

제5장. 북한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형성요인

마을거리꾸리기참여태도	0.015	0.114	0.13	0.894	0.036	10.37	
마을거리꾸리기출석률	0.159	0.366	0.43	0.665	0.094	5.56	
마을거리꾸리기참여태도*	-0.059	0.145	-0.41	0.682	-0.137	17.58	
마을거리꾸리기출석률							
건설·농촌동원참여태도	0.234	0.067	3.45	0.001***	0.525	4.24	
건설·농촌동원출석률	0.759	0.232	3.26	0.002***	0.541	3.71	
건설·농촌동원참여태도*	-0.310	0.101	-3.06	0.003***	-0.640	7.28	
건설·농촌동원출석률							
성별(여성=0, 남성=1)	0.046	0.161	0.29	0.774	0.031	1.41	
연령(현재)	0.000	0.005	0.13	0.899	0.018	2.32	
거주지역 (평양=0)	(혜산=1)	-0.455	0.203	-2.24	0.028**	-0.410	3.70
	(청진=1)	-0.186	0.193	-0.96	0.340	-0.162	3.37
	(함흥=1)	-0.569	0.255	-2.23	0.028**	-0.270	1.75
	(기타=1)	-0.411	0.228	-1.80	0.076*	-0.248	2.11
살림집형태 (하모니카=0)	(아파트=1)	0.146	0.118	1.24	0.217	0.133	1.38
	(독집=1)	0.080	0.156	0.51	0.608	0.047	1.27
인민반장 경험(무=0, 유=1)	0.350	0.150	2.33	0.022**	0.233	1.52	
ln거주기간(월)	0.087	0.071	1.23	0.221	0.127	1.33	
Intercept	-0.734	0.428	-1.71	0.091	.	.	
No. of samples, R2	N=100, R <sup>2</sup> =0.3518						

\* p<0.1, \*\* p<0.05, \*\*\* p<0.01

- 인민반활동의 참여태도(강제적, 자발적)와 출석률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넣어 회귀분석을 한 결과, 건설·농촌동원 참여태도와 출석률, 건설·농촌동원 참여태도와 출석률의 상호작용항이 유의함을 알 수 있음. 건설·농촌동원의 참여태도가 자발적일수록, 출석률이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상호작용항은 (-)의 상관관계를 보임. 이는 출석률이 높은 사람이 더 자발적인 참여태도를 갖는다고 공동체의식이 더 높아지지 않는 한계효과가 작용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이웃과 친해진 동기가 인민반활동인 53명 중에서, 마을거리꾸리기와 농촌동원을 중복 답변한 11명(21%)을 제외하고 마을거리꾸리기를 23명(43%)이, 농촌동원(68)을 8명(15%)이 응답했음. 심층면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민반회의보다 대화를 나누고 같이 식사하고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는 마을거리꾸리기와 동원을 통해서 관계가 강화됨을 알 수 있음.

((인민반 회의, 동원, 마을거리꾸리기 중에서 어떻게 더 관계를 끈끈하게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동원하고 일하는 데에서 더 끈끈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의 가면은 별로 말할 데가 없고, 돌아서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일하거나 동원

68) 노동 강도가 세고, 같이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건설동원은, 마을거리꾸리기와 농촌동원을 중복 답변한 10명(21%)을 제외하고, 1명(2%)이 이웃과 친해진 인민반활동으로 답변함.

나가거나, 마을 청소 나가거나 하면은 그래도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못 보던 사람은 새로운 세대가 와서 일한다 해도, 누군가 언제 왔는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음 날에 만나면 또 인사하고 들어가게 되고 (중략) 떠나고 일 하라고 할 때는 다 입이 이만큼 나와 따라가다가도, 올 때는 다 힘들어도 다 너무 좋아서 또 어려움도 있고 집에 오거든요. (중략) 무리지어 오면서 서로가 서로 관계를 얘기하면서 올 때가 너무 다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더 돈독해지고 사람들이 서로가 가까워지거든요. (참여자\_혜산1: 16)

### 3) 지역공동체의식의 구성요소와 독립변인

- 지역공동체의식의 3개 구성요소인 장소애착, 구성원의식, 정서적 친밀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5-7> 지역공동체의식 구성요소들과 독립변인

장소애착(F1)		구성원의식(F2)		정서적친밀감(F3)				
변수	Beta	변수	Beta	변수	Beta			
안전성(쾌적성)	0.368***	제도신뢰도	0.366**	일상행위범위_어린이	0.176*			
중심성	0.182**	이웃교제만족도	0.270***	이웃범위	0.133			
거주환경만족도(전체)	0.091	공식활동 참여태도(평균)	0.119	마을거리꾸리기출석률	-0.028			
주택규모(평)	0.248***	교제강도3	0.083	국가건설동원출석률	0.155			
		국가건설동원출석률	0.082	교제강도3	0.141			
성별(여성=0, 남성=1)	-0.010	성별(여성=0, 남성=1)	0.056	성별(여성=0, 남성=1)	-0.041			
연령(현재)	0.088	연령(현재)	-0.154*	연령(현재)	0.044			
거주지역 (평양=0)	(혜산=1)	-0.183	거주지역 (평양=0)	(혜산=1)	-0.148	거주지역 (평양=0)	(혜산=1)	-0.016
	(청진=1)	0.007		(청진=1)	-0.147		(청진=1)	-0.046
	(함흥=1)	-0.012		(함흥=1)	-0.204*		(함흥=1)	0.111
	(기타=1)	-0.037		(기타=1)	-0.209*		(기타=1)	-0.173
살림집형태 (하모냐카=0)	(아파트=1)	0.122	살림집형태 (하모냐카=0)	(아파트=1)	-0.122	살림집형태 (하모냐카=0)	(아파트=1)	-0.034
	(독집=1)	-0.008		(독집=1)	-0.061		(독집=1)	-0.062
인민반장 경험(무=0, 유=1)	0.099	인민반장 경험(무=0, 유=1)	0.111	인민반장 경험(무=0, 유=1)	0.157			
ln거주기간(월)	-0.028	ln거주기간(월)	0.095	ln거주기간(월)	0.112			
N=96, R <sup>2</sup> =0.5179		N=99, R <sup>2</sup> =0.5097		N=96, R <sup>2</sup> =0.2480				

\* p<0.1, \*\* p<0.05, \*\*\* p<0.01

- 장소애착은, 지역공동체의식과 동일하게 거주환경에 대한 심리적 특성 중에서 안전성(쾌적성)과 중심성이 (+)의 영향을 미치고, 주택규모가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 구성원 의식은, 제도에 대한 신뢰(조직우선, 인민반 생활규칙 순응, 인민반장 신뢰, 체제 순응)가 (+)의 영향을 미치고, 이웃교제 만족도가 (+)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음. 거주지역이, 함흥, 기타지역일수록 평양보다 장소애착이 낮음을 알 수 있음.

- 정서적 친밀감은, 일상적 행위의 범위 중에서 어린이를 혼자 놀도록 두는 범위가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3. 기존 연구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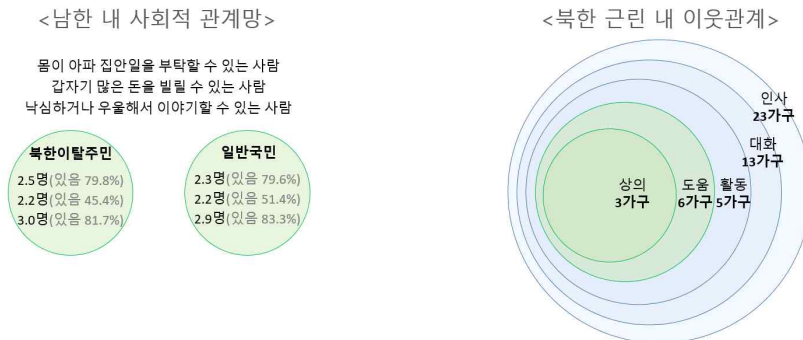
#### 1) 공동주택단지과 공동체의식

- 이라영·신남수(2009)의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 연구에 의하면, 공동체 의식과 거주환경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쾌적성, 경계성, 길 찾기 쉬운 구조, 거주환경만족도가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과밀감은 (-)의 상관관계를 보임.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친한 이웃 수(교제하는 가구 수), 활동참여 정도(열심히 참여~참여안함), 교제수준(활발~없음/만족도), 근린 인식범위, 주민동질성이 상관관계를 보임. 개인적 특성에서는 소유유형이 상관관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도, 심리적 특성과 상호작용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심리적 특성 중에서 ‘안전성(쾌적성)’이, 표준화계수를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동일했음. ‘중심성(활동의 중심공간)’, 교제하는 가구의 수뿐만 아니라 ‘교제의 정도’, ‘주택규모’가 영향을 미치는 것과 평양지역인 경우에 지역공동체의식과 장소애착이 높은 것은 차별점이 있음.

#### 2) 교제의 정도

- 남한 내 사회적 관계망의 수치와 본 설문조사 내용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관계망이 수치적으로는 남한의 일반국민과 거의 차이가 없음. 하지만, 이들이 북한에서 도보 20분 내에 형성했던 교제의 정도와 관계망을 보면, 남한에서 이들이 맺는 관계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2> 남북한 교제의 정도



자료: 남북하나재단(2020).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와 설문조사 내용으로 구성함.





## 제6장. 결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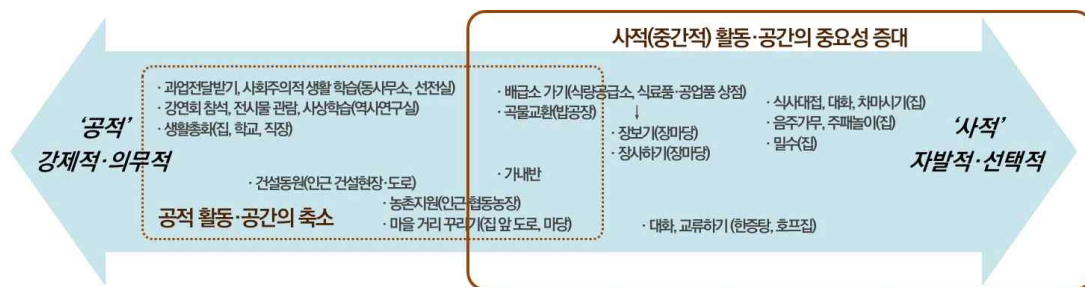




1. 연구결과의 요약

- 북한은 헌법 제63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듯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집단주의 원칙이 전면적으로 구현되는 사회이며, 가장 기초적이고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주거지 단위에서는 인민반을 통해 집단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음.
- 북한의 주택소구역에는 공동 취사·식사시설, 사상·교양시설, 가내작업장 등의 공동 시설이 조직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인민반장을 중심으로 한 인민반원들은 선전활동 및 사상학습, 마을과 거리 꾸리기, 유희자재 수집·수매와 가내작업반 활동, 국가건설동원 및 농촌지원 등의 과업을 수행하며 주민들이 갖추어야 할 집단주의적 가치와 공동체 생활을 학습하고 장려해 왔음.
-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으로 주택소구역 내 국가가 운영하는 봉사시설의 기능이 대부분 축소되었지만, 사상·교양시설은 다른 봉사시설들에 비해 현재까지도 비교적 유지 및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배급제의 와해로 인해 공적 경제활동의 공간은 약화된 반면 집, 장마당,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 등 사적 경제활동의 공간이 확대되고 있음.
- 공적활동으로 끌어낼 수 있었던 국가의 동력이 상실됨에 따라, 집단주의 및 공산주의 체제하에 사적영역에서 움츠려 있었던 반체제·사적(중간적) 성격의 활동들과 비공식적·비법적 공동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림 6-1> 사적(중간적) 활동·공간의 중요성 증대



- 북한의 지역공동체는, 사회주의 국가의 계획된 공동체(planned community)가 국가차원의 경제위기와 개인차원의 제약조건 하에서의 의사결정에 의해, 체화되거나 변형되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시스템 하에서,

의무적 관계와 선택적 관계, 공적 관계와 사적관계가 중첩되어 있는 강제된 공동체(imposed community)를 형성함을 알 수 있음.

- 북한 내 거주 시, 지역공동체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동네에 대해 안전하게 느끼고 활동의 중심공간이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요인과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즉, 거주환경의 안전성과 중심성에 대한 심리적 인지가 북한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의 형성과 유지에도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함.
- 그러나 최근 북한에서는 집단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시설들이 감소하고 사적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과 유지에도 물리적 주거환경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오히려 지역 주민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 공동 활동이 더 중요한 요소로 확인됨. 지역 내 주민 상호 간의 교제의 강도와 지역공동체의식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북한에서도 이웃과의 교류와 상호부조와 같은 관계망의 형성이 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는 결과임.
- 북한의 지역공동체는 강제된 공동체로서의 성격도 띠고 있어서, 인민반 활동과 같은 공식적 공동체 활동도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함. 특히 국가건설 및 농촌동원에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할수록 지역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북한 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지역을 가꾸는 자원봉사활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러한 특수성이 반영된 현상으로 판단됨.
- McMillan & Chavis(1986)의 접촉가설(Contact hypothesis)과 상호작용의 질(Quality of interaction)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과 통합을 위한 방안을 고려할 때 교류(접촉)의 기회뿐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교류의 정도(깊이)도 같이 고려되어야 함.
- 남한의 지역공동체의식 연구와 비교했을 때, 차별점도 있지만 동일한 영향요인이 주요한 것을 통해서, 남북한의 제도적 차이는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개인이 가지는 보편성과 제도 등 환경에 의한 특수성을 같이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
- 더불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교류의 기회와 정도를 고려할 때에 남한 내 절대비교 뿐만 아니라 이들이 북한 내 거주할 때 가졌던 교류의 기회와 정도를 고려한 상대비교가 필요함.

## 2.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 북한 도시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연구는 이탈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최근 변화하는 상

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집단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시설들이 최근 많이 줄어들었고, 존치된 공동 시설들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함.

- 북한에서도 안전한 주거환경과 중심지를 갖는 환경이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에 긍정적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거환경과 공동체의식 간 관계에 대한 연구 질문에 일부 긍정적 답을 얻었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임. 다만 당초 예상과 달리 주거지역 내 공동시설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과 유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특기할만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북한 내부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 의식에 대한 조사와 그 둘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로서 분석의 엄밀성과 실용적 활용성 제고를 위해 후속의 연구가 필요함.
- 우선,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비용의 제약으로 인해 설문조사의 표본의 크기가 100명에 그쳐서 정교한 통계모형의 도입을 통한 심층적 분석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후속의 조사를 통해 표본의 크기를 더 늘릴 필요가 있음. 물론 이러한 종류의 조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조사는 중요한 발견의 성과를 남겼으나, 좀 더 엄밀한 발견을 위해서는 표본 크기의 확대가 필요함.
- 둘째, 이 연구는 평양, 혜산, 청진, 함흥 4개 도시의 아파트와 하모니카집으로 이뤄진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나, 북한 내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지역 및 시기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독집 거주자, 농촌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거나 고난의 행군 전후 비교 등의 비교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설문대상자의 지역적, 인구학적 편향성을 줄일 필요가 있음.
- 셋째,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내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그들이 현재 남한 내에서 경험하는 주거문제와 지역공동체와의 단절 및 고립과 같은 문제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함. 본 연구에서 조사한 북한 내 주거환경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내용과 남한 내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훨씬 더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상의 연구의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조사와 분석결과를 이번 연구 결과와 연계하여 해석하면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통일 준비과정에서 주택, 주거환경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확대, 통일 후 남북한 이질성 극복 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참고문헌







- 김민권, 2020.10.07. “2020 국감, 북한 이탈주민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자살’”, 데일리시큐.
- 김동한 외, 2006. 「북한의 사회문화」, 파주: 한울.
- 김민아, 2018. “북한의 주택 소구역 계획에 관한 연구: 1955-1967년 단지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병로, 2016. 「북한, 조선으로 다시 읽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옥, 2015.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연구동향(2011~15년)”, 「KDI 북한경제리뷰」, 9월호, p.71-82.
- 김윤애, 2016. “북한의 사회적 관계와 주민 사회화 과정의 메커니즘: 국가주의 통합을 중심으로”, 북한학보 제41권 1, p.111-144.
- 김익성, 2011.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사회과학연구, 27(1), p.151-179.
- 김재건, 1990. “남신의주 8호 구획 건축계획에서 얻은 경험”, 조선건축 제12호(1990년 3월), p.75-76.
- 김종수, 2008. “북한의 ‘생애주기’적 조직생활 변화와 내구력 평가”, 인문사회과학연구, 2008-12, Vol.1 (21), p.5-37.
- 김현수, 1993.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p.17-31.
- 김현수, 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남북하나재단, 2020.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조사」
- 남북하나재단, 2017. “북한이탈주민 시군구별 실태보고서: 10대 주요 거주지역편”
- 리순건, 1962. “유해성이 없는 경공업 공장들의 주택 지구 내 합리적 배치”, 「건축과 건설」 1962년 8월, 평양: 공업출판사.
- 리순건, 1963. “주택 소구역 계획”, 평양: 국립건설출판사.
- 리화선, 1989. 「조선건축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 문성훈, 2017. “공동체 개념의 구조 변화”, 문화와 정치, 4(4), p.43-68.
- 박원용, 2010. “스탈린 체제 일상사연구의 현황과 쟁점”,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 외침과 속삭임」, 고유환 외 11인, 파주: 한울.
- 배영애, 2018.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인민반의 역할과 변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과 평화」, 2018-12-31, Vol.10 (2), p.193-240.
- 백과사전출판사 편, 2001. 「조선대백과사전」, 제28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 신건수·박진석(2021). "7강 소구역계획과 북한식 생활방식", '북한도시와 건축', <http://www.kmooc.kr/>. 강의안.
- 신봉숙·리지혜(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2004. "상원 2호 구획 형성계획", 조선건축 2004년 3호.
- 안량옥(평양시 도시설계연구소 도시계획실 설계원), 1959. "대타령 모범 주택 구획 조직에 대하여", 「건축과 건설」, 1959년 2월, p.7-11.
- 알렉사드르 제빈, 1994. "사회체제의 변화된 전통으로서의 북한의 인민반", 「아세아 연구」, 제37권 제1호, p.141-159.
- 양문수, 2016. "북한 시장화 동향과 향후 전망", 「북한경제리뷰」, 2016(1), p.26-30.
- 올랜도 파이시스, 2007; 김남섭 역, 2013. 「속삭이는 사회 : 스탈린 시대 보통 사람들의 삶, 내면, 기억」, 서울 : 교양인.
- 이라영, 신남수, 2009. "공동주택단지 주민의 공동체의식에 관한 연구", 「계획계」, 25(3), p.223-234.
- 이수정, 2014. "접촉지대와 경계의 (재)구성: 임대아파트 단지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갈등과 협상", 「현대북한연구」, 17(2), p.85-126.
- 이제훈, 2020.07.27. "2015년 이후 탈북자 12명 북쪽으로 돌아가", 한겨레.
- 이중희, 2003). "중국 단위체제의 변화와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위기", 「국제지역연구」, 2003-09-30, Vol.7 (3), p.85.
- 임동우, 2012. 「평양 그리고 평양 이후 - 평양도시공간에 대한 또 다른 시각: 1953-2011」, 파주: 효형출판.
- 장세훈, 2005. "북한 도시 주민의 사회적 관계망 변화", 「한국사회학」, 39(2), p.100-134.
- 장윤미, 2010. "중국 기층사회에서 일어난 문화대혁명과 인민의 일상", 「북한의 일상 생활세계 : 외침과 속삭임」, 고유환 외 11인, 파주 : 한울.
- 조정아, 2017. "북한 주민의 여가생활." 「KDI 북한경제리뷰」, 제19권 8호.
- 조정아·최은영, 2017.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서울: 통일연구원.
- 주종원·김현수, 1993. "북한의 주거지 계획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28(3), p.17-31.
- 채경희, 2017. "북한 인민반의 조직,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5호, p.809-819.

- 최병선, 1989.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계획: 이론과 실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도시 문제」, 1989-09-30, Vol.24 (9), p.6-17.
- 최지선, 2020.08.07. “살기 고달픈 탈북민 ‘재입북의 유혹’ … 9년간 28명 넘어갔다”, 동아닷컴.
- 통일부, 2020. “북한이탈주민 통계”,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 Anatole Kopp저, 1993. 「소비에트건축: 1923-1937」, 건축운동연구회 역, 서울: 도서출판 발언.
- Gary Hausladen, 1984. “The Satellite City in Soviet Urban Housing”, 「Soviet Geography」, Vol. 25, No. 4.
- Hillery, G. A., 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p.111-123.
- James H. Bater, 1977. “Soviet Town Planning: Theory and Practice in the 1970'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2), p.177-207.
- James H. Bater, 1980. 「The Soviet City」, Sage, Beverly Hills, p.27-30.
- McMillan, David W. & Chavis, David M.,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986-01, Vol.14 (1), p.6-23.
- N. V. Baranov, 1969. 「Planning of Metropolitan Areas and New Towns」, United Nations.
- Paul White, 1980. “Urban Planning in Britain and the Soviet Union”, 「Town Planning Review」, Vol. 51 No. 2 April, p.216-217.
- Poplin, Dennis E., 1979. "The Concept of Community", 「Communities : a survey of theories and methods of research」; 신용하 편(1985), 「공동체 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로동신문」, 1963년 3월 13일.
- 「로동신문」, 1992년 2월 5일.
- 「로동신문」, 2014년 4월 22일.
- 「조선신보」, 2006년 11월 28일.



# 부 록





## [1. 설문지]

## 북한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 의식 간 관계\_설문조사

NO. 

--	--	--

북한을 떠나오시기 전 가장 오래 살았던 살림집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세요.(군대, 공장 기숙사, 합숙소 등은 제외)

## 가. 독립변수

## ① 북한의 주거에 대한 일반적 사항

1-1) 어떤 형태의 살림집에서 사셨습니까?

- ① 아파트            ② 하모니카집(연립주택)            ③ 독집  
④ 기타 살림집(적어주세요:            )

1-2) 살았던 살림집에 거주하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            )년~ (            )년까지, (            )년 (            )개월 동안

1-3) 살았던 살림집은 어떻게 거주하게 되었습니까?

- ① 국가에서 배정받음    ② 돈 주고 샀음(매매)    ③ 다른 사람에게 빌렸음(월세)  
④ 부모님 살림집에 동거    ⑤ 친척 살림집에 동거    ⑥ 기타(적어주세요:            )

※ ⑥ 기타(예시) : 임시거처, 지인 살림집에 동거 등

1-4) 살았던 살림집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            ) (평, m<sup>2</sup>)

1-5) 살았던 살림집의 방의 개수는 어떠합니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1-6) 살림집에 몇 층에 사셨습니까? (            )층

## ② 물리적 환경

## 1. 소구역 특성

1-1) 한 층에는 몇 개의 살림집이 있었습니까? (            )개

1-2) 실제 본인의 가족을 포함하여 같은 층에는 살았던 세대수는? ( )세대

1-3) 살았던 구획의 살림집동 최고층수는 어떠합니까? ( )층

1-4) 살았던 구획의 살림집 동수는 어떠합니까? ( )동

1-5) 살았던 구획(독집일 경우 살림집)의 최초 입주연도는? ( )년

1-6) 살았던 살림집 주거동의 복도형태는?

- ① 편복도식      ② 중복도식      ③ 계단식      ④ 탑식(타워식)

1-7) 살았던 살림집의 주거동 배치유형은?

- ① 병렬형      ② L형      ③ ㄷ형      ④ ㄹ형(중정형)      ⑤ 혼합형

## 2. 봉사시설의 구성

북한에서 2010년 이후 가장 오래 살았던 구획(소구역)에 아래 봉사시설의 유/무, 이용빈도를 표시해 주세요.(해당되는 곳에 기재해 주세요.)

### 2-1) 공동 가사시설

	유/무 (O, X)	이용빈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밥공장		( )회/(주, 월, 년)	
가족식당		( )회/(주, 월, 년)	
전문식당		( )회/(주, 월, 년)	
부식물 매대		( )회/(주, 월, 년)	
세탁물 취급소		( )회/(주, 월, 년)	

※ 이용빈도 작성(예시) : 주 2회 이용했을 때, ( 2 )회/((주), 월, 년)

### 2-2) 공동 생산시설

	유/무 (O, X)	근무빈도	
		근무한 적 있음	근무한 적 없음
가내작업장		( )회/(주, 월, 년)	
경공업장		( )회/(주, 월, 년)	
식료품공장		( )회/(주, 월, 년)	
지방산업공장		( )회/(주, 월, 년)	

2-3) 공동생산시설에서 생산했던 제품은? ( )



## 2-4) 사상·교양시설

	유/무 (O, X)	이용빈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선전실		( )회/(주, 월, 년)	
신문도서열람실		( )회/(주, 월, 년)	
어머니교양실		( )회/(주, 월, 년)	
아동교양실		( )회/(주, 월, 년)	
기타( )		( )회/(주, 월, 년)	

## 2-5) 교육·문화시설

	유/무 (O, X)	이용빈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탁아소		( )회/(주, 월, 년)	
유치원		( )회/(주, 월, 년)	
소학교		( )회/(주, 월, 년)	
도서관		( )회/(주, 월, 년)	
문화회관		( )회/(주, 월, 년)	
아동회관		( )회/(주, 월, 년)	

## 2-6) 상업·업무시설

	유/무 (O, X)	이용빈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한증탕(목욕탕)		( )회/(주, 월, 년)	
탁구장		( )회/(주, 월, 년)	
당구장		( )회/(주, 월, 년)	
롤러스케이팅장		( )회/(주, 월, 년)	
볼링장		( )회/(주, 월, 년)	
수영장		( )회/(주, 월, 년)	
헬스장		( )회/(주, 월, 년)	
영화관		( )회/(주, 월, 년)	
오락장(빠짱코)		( )회/(주, 월, 년)	
호프집(맥주집)		( )회/(주, 월, 년)	
노래방		( )회/(주, 월, 년)	
식량공급소		( )회/(주, 월, 년)	
연료공급소		( )회/(주, 월, 년)	
식료품상점		( )회/(주, 월, 년)	
공업품상점		( )회/(주, 월, 년)	
저금소		( )회/(주, 월, 년)	
약방		( )회/(주, 월, 년)	
종합진료소		( )회/(주, 월, 년)	

	유/무 (O, X)	이용빈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이발관		( )회/(주, 월, 년)	
고품수매소		( )회/(주, 월, 년)	
종합편의수리소		( )회/(주, 월, 년)	
건물관리소		( )회/(주, 월, 년)	
동사무소		( )회/(주, 월, 년)	

**2-7) 체육시설 및 외부공유공간**

	유/무 (O, X)	이용빈도	
		이용한 적 있음	이용한 적 없음
어린이놀이터		( )회/(주, 월, 년)	
노인휴식장		( )회/(주, 월, 년)	
공원		( )회/(주, 월, 년)	
체육장		( )회/(주, 월, 년)	
운동장		( )회/(주, 월, 년)	
공동녹지		( )회/(주, 월, 년)	
경영뜰		( )회/(주, 월, 년)	

**2-8) 봉사시설 중에서, 시설은 있으나 운영되지 않은 시설은 어떤 시설이 있었습니까? (적어주세요: )**

**㉓ 이웃 또는 거주환경과의 상호작용**

**1. 근린인식**

**1-1)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거주하시던 곳에서 누가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 ①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                      ② 같은 주거동에 사는 사람들
- ③ 같은 마당을 공유하는 주거동(주택군)에 사는 사람들
- ④ 같은 구획(소구역)에 사는 사람들        ⑤ 기타(적어주세요: )

**1-2)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어디까지가 우리 동네라고 생각했습니까?**

- ① 같은 주거동                                  ② 같은 마당을 공유하는 주거동(주택군)
- ③ 같은 구획(소구역)                        ④ 같은 (행정)동                              ⑤ 같은 구역
- ⑥ 기타(적어주세요: )

2. 이웃과의 교제

2-1)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동네에서 이웃 주민들과의 교제(교류)에 만족했습니까?

- ① 매우 불만족했다                      ② 불만족하는 편이었다                      ③ 그저 그랬다
- ④ 만족하는 편이었다                      ⑤ 매우 만족했다

2-2)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동네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이웃관계의 정도	없다	1~2가구	3~5가구	5~10가구	10~20가구	20가구이상
만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눈다.						( )가구
만나면 간단한 대화를 나눈다.						( )가구
같이 외출이나 활동을 한다.						( )가구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준다.						( )가구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하며 가족같이 지낸다.						( )가구

2-3)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이웃과의 교제 횟수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인민반 활동 포함) ( )회 / (주, 월)

※ 작성(예시) : 주 2회 이용했을 때, ( 2 )회/(주, 월)

2-4)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이웃과 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였습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인민반 활동을 통해                      ② 아이들의 사귀를 통해
- ③ 주부 혹은 가장끼리의 사귀를 통해                      ④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 ⑤ 직장과 직업이 유사해서                      ⑥ 같은 봉사시설을 이용해서
- ⑦ 가까이 살아서 자주 얼굴을 보아서                      ⑧ 기타(적어주세요: )

☞ 2-4-1) 위 질문에서 ①번을 기재하신 경우, 어떤 인민반 활동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적어주세요: )

※ 참고 : 생활총화, 사상학습, 마을과 거리꾸리기, 국가건설동원 등

☞ 2-4-2) 위 질문에서 ④번을 기재하신 경우, 어떤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적어주세요: )

※ 참고 : 낚시, 농구동호회, 주패놀이, 사우나, 남한드라마 감상 등

위의 활동을 했던 장소는 어디였나요? (적어주세요: )

※ 참고 : 체육장, 한증탕, 살림집 내 등

☞ 2-4-3) 위 질문에서 ⑥번을 기재하신 경우, 어떤 봉사시설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적어주세요: )

2-5)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이웃과의 대화나 교류를 가장 활발하게 했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자주 교류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세대별 집안에서    ② 복도, 계단, 홀에서    ③ 주거동 1층(집 앞) 현관에서

④ 주거동(집) 앞 마당에서    ⑤ 구획(소구역) 내 봉사시설에서

⑥ 기타(적어주세요: )

☞ 2-5-1) 위 질문에서 ⑤번을 기재하신 경우, 어떤 봉사시설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적어주세요: )

※ 참고(봉사시설) :

- . 공동 가사시설(밥공장, 가족식당, 전문식당, 부식물 매대, 세탁물 취급소)
- . 공동 생산시설(가내작업장, 경공업장, 식료품공장, 지방산업공장)
- . 사상·교양시설(선전실, 신문도서열람실, 어머니교양실, 아동교양실)
- . 교육·문화시설(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도서관, 영화관, 문화회관, 아동회관)
- . 상업·업무시설(식량공급소, 연료공급소,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 저금소, 약방, 종합진료소, 목욕탕, 이발관, 고품수매소, 종합편의수리소, 건물관리소, 동사무소)
- . 체육시설 및 외부공유공간(어린이놀이터, 노인휴식장, 공원, 체육장, 운동장, 공동녹지, 경영뜰)

3. 활동참여

3-1)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이웃 사람들과 함께 해본 적이 있는 비공식적 활동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주 활동한 순서대로 번호를 기입해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 ① 일상서비스 교환(아이보기, 식사대접, 물건 빌려쓰기)
- ② 단순 친교 및 공동 여가(차·술 마시기, 시간보내기, 주패놀이, 춤판)
- ③ 취미 활동(탁구, 농구 등)                    ④ 호혜적 상부상조(생일·결혼·장례 챙기기)
- ⑤ 금전거래     ⑥ 중요한 일 상의     ⑦ 자원봉사 활동(인민반 활동 제외)
- ⑧ 기타(적어주세요:                            )

3-2)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비공식적 공동체 활동에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각각의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가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비공식적 활동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적극적 참여했다	그저 그랬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 활동이 없었다
경제적 협동 활동 (비배관리, 조직적 부업 등)	5	4	3	2	1	0
취미 및 친목 활동 (농구동호회 등)	5	4	3	2	1	0
상호부조활동 (결혼, 장례 등)	5	4	3	2	1	0
봉사활동 및 자선활동	5	4	3	2	1	0

3-3)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식적 공동체 활동에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각각의 활동에 대한 참여 정도가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공식적 활동	매우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그저 그랬다	강제적으로 참여했다	매우 강제적으로 참여했다	그런 활동이 없었다
경제적 협동 활동 (가내작업반 등)	5	4	3	2	1	0
생활총화	5	4	3	2	1	0
인민반회의	5	4	3	2	1	0
사상학습 (강연회, 연구모임 등)	5	4	3	2	1	0
마을·거리 꾸리기 동원	5	4	3	2	1	0
국가건설 동원	5	4	3	2	1	0

#### 4. 동질성 인식

4-1)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교육수준, 사회적 지위, 생활수준 등이 어느 정도 동질하다고 생각했습니까?

- ① 전혀 동질적이지 않았다      ② 별로 동질적이지 않았다  
 ③ 보통이었다      ④ 어느 정도 동질적이었다      ⑤ 매우 동질적이었다

#### 5. 만족도

5-1)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거주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

	매우 만족했다	약간 만족했다	그저 그랬다	약간 불만족했다	매우 불만족했다
거주환경 전체 평가	5	4	3	2	1
개인생활 보호 (프라이버시 확보)	5	4	3	2	1
집 내부의 환경 (평면, 조망, 일조, 통풍)	5	4	3	2	1
봉사시설	5	4	3	2	1
통근 및 교통 사정	5	4	3	2	1
전력 및 물 공급	5	4	3	2	1
자녀 교육환경	5	4	3	2	1

5-2)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동네의 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다?

	매우 만족했다	약간 만족했다	그저 그랬다	약간 불만족했다	매우 불만족했다	시설이 없었거나 이용한 적이 없었다
봉사시설 전체 평가	5	4	3	2	1	0
공동 가사시설	5	4	3	2	1	0
공동 생산시설	5	4	3	2	1	0
사상·교양시설	5	4	3	2	1	0
교육·문화시설	5	4	3	2	1	0
상업·업무시설	5	4	3	2	1	0
체육시설	5	4	3	2	1	0
외부공유공간(공원 등)	5	4	3	2	1	0
도로 및 주차시설	5	4	3	2	1	0

※ 참고(봉사시설) :

- . 공동 가사시설(밥공장, 가족식당, 전문식당, 부식물 매대, 세탁물 취급소)
- . 공동 생산시설(가내작업장, 경공업장, 식료품공장, 지방산업공장)
- . 사상·교양시설(선전실, 신문도서열람실, 어머니교양실, 아동교양실)
- . 교육·문화시설(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도서관, 영화관, 문화회관, 아동회관)
- . 상업·업무시설(식량공급소, 연료공급소,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 저금소, 약방, 종합진료소, 목욕탕, 이발관, 고품수매소, 종합편의수리소, 건물관리소, 동사무소)
- . 체육시설 및 외부공유공간(어린이놀이터, 노인휴식장, 공원, 체육장, 운동장, 공동녹지, 경영뜰)

## 6. 심리적 인지

6-1)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동네에 거주하면서 환경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표기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단지 환경에 대한 인식	매우 그랬다	그런 편이었다	그저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동네 입구에서 주변 환경과 구별되는 단지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든다.	5	4	3	2	1
2	동네 경계부에서 소구역의 바깥과 안의 구분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5	4	3	2	1
3	동네 내에서 주민들이 모이는 활동의 중심공간이라고 느껴지는 곳이 있다.	5	4	3	2	1
4	동네 봉사시설들에 접근이 쉬워서 이용에 용이하다.	5	4	3	2	1
5	동네 봉사시설들이 잘 연계되어 있어서 연계 이용이 용이하다.	5	4	3	2	1
6	우리 동네는 길찾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다.	5	4	3	2	1

☞ 6-1-1)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일상적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였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일상적 행위의 범위	세대 현관 앞	1층 주거동 앞	주택군 마당	구획 (소구역)
자물쇠를 걸지 않고 바로 나오기도 하는 곳				
어린이를 곁에서 돌보지 않고도 놀게 두는 곳				
종이나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우려 하는 곳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쓰이는 곳				

☞ 6-1-2)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귀가 시 어디까지 왔을 때에 자신의 집에 거의 다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 ① 구획(소구역) 근처                      ② 구획(소구역) 입구                      ③ 주택군 마당(중정)
- ④ 주거동 입구                              ⑤ 세대 현관 입구

6-2)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환경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표기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단지 환경에 대한 인식	매우 그랬다	그런 편이었다	그저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우리 동네는 다른 동네와 구별되는 특성(지역성,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5	4	3	2	1
2	우리 동네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5	4	3	2	1
3	우리 동네는 자연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5	4	3	2	1
4	동네 내부에 들어서면 주변의 환경이 위압적으로 느껴진다.	5	4	3	2	1
5	동네 내부에서 개방감을 느낄 수 있다.	5	4	3	2	1
6	동네의 면적에 비해 사람이 너무 많이 살고 있어서 혼잡하다.	5	4	3	2	1

4] 제도적 환경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인민반 활동의 참여률과 참여방식을 기재해 주세요.

1-1)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활동의 발생 빈도와 참여률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발생 빈도	실제 출석률 (직접 출석한 비율)				
		30% 미만	30~50%	50~70%	70~90%	90% 이상
생활총화	( )회/(주, 월)					
인민반 회의	( )회/(주, 월)					
사상학습 (강연회, 연구모임 등)	( )회/(주, 월)					
마을·거리 꾸리기 동원	( )회/(주, 월)					
국가건설 동원	( )회/(주, 월)					

※ 발생 빈도 작성(예시) : 주 2회 개최되었을 때, ( 2 )회/(주, 월)



## 1-2)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다음 활동의 참여방식을 기재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직접 참여	대리 참여 (가족 외)	현물 지불	기타
생활총화				(적어주세요: )
인민반 회의				(적어주세요: )
사상학습 (강연회, 연구모임 등)				(적어주세요: )
마을·거리 꾸리기 동원				(적어주세요: )
국가건설 동원				(적어주세요: )

## 1-3)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인민반 내 가구 수 및 구성원 수는 어떠했습니까?

( )가구 ( )명

## 1-4) 위 답변의 기준이 된 인민반 활동시기는 언제입니까? ( )년

## ⑤ 조직과 체제에 대한 신뢰

## 1-1) 살았던 구획 내에서, 생활하면서 느끼신 조직과 체제에 대한 신뢰를 표시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조직과 체제에 대한 신뢰	매우 그랬다	그런 편이었다	그저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조직의 일은 개인의 일보다 우선했다.	5	4	3	2	1
2	인민반에서 새로운 생활규칙을 정하면 믿고 따르는 편이었다.	5	4	3	2	1
3	인민반장을 믿고 따르는 편이었다.	5	4	3	2	1
4	당과 사회주의 체제에 순응하는 편이었다.	5	4	3	2	1

나. 종속변수 : 공동체 의식

북한에서 2010년 이후 가장 오래 살았던 구획(소구역)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답을 표시해 주세요.

① 구성원의식

1-1) 살았던 구획 내에서, 생활하면서 느끼신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표시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구성원 의식	매우 그랬다	그런 편이었다	그저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나는 우리 동네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5	4	3	2	1
2	나는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알고 있다.	5	4	3	2	1
3	나를 아는 이웃들이 적다.	5	4	3	2	1
4	나는 우리 동네를 집과 같이 느낀다.	5	4	3	2	1
5	우리 동네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5	4	3	2	1

② 상호영향의식

2-1) 살았던 구획 내에서, 생활하면서 느끼신 공동체에 대한 상호영향을 표시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상호영향의식	매우 그랬다	그런 편이었다	그저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우리 동네에 사는 것은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5	4	3	2	1
2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5	4	3	2	1
3	나의 행동에 대해 이웃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인다.	5	4	3	2	1
4	우리 동네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민들이 단결하여 해결할 수 있다.	5	4	3	2	1
5	나는 우리 동네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	5	4	3	2	1

### ③ 욕구의 충족과 통합

3-1) 살았던 구획 내에서, 생활하면서 느끼신 공동체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욕구의 충족과 통합	매우 그랬다	그런 편이었다	그저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우리 동네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고 있다.	5	4	3	2	1
2	이 동네에 살고 있으므로 여러 혜택을 받고 있다.	5	4	3	2	1
3	내가 대화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대상을 당장 동네에서 찾을 수 있다.	5	4	3	2	1
4	우리 이웃과 나는 동네로부터 비슷한 것을 원한다.	5	4	3	2	1
5	우리 동네 사람들은 가치관(생각)이 비슷하다.	5	4	3	2	1
6	우리 동네는 살기에 별로 좋지 않다.	5	4	3	2	1

☞ 3-1-2) 위 질문 중, ‘우리 동네는 살기에 별로 좋지 않다’에 대해 ‘매우 그랬다’와 ‘그런 편이었다’ 라고 느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세대 내 환경이 나빠서    ② 교육여건이 나빠서    ③ 주변 환경이 나빠서  
④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⑤ 기타(적어주세요: )

### ④ 공유된 정서적 친밀감

4-1) 살았던 구획 내에서, 생활하면서 느끼신 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을 표시해 주세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해주세요.)

	정서적 친밀감	매우 그랬다	그런 편이었다	그저 그랬다	그렇지 않았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1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5	4	3	2	1
2	나는 우리 동네에 오래 살기를 바란다.	5	4	3	2	1
3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다.	5	4	3	2	1
4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고 있다.	5	4	3	2	1
5	우리 동네와 이웃이 잘되면 나에게도 좋은 일이다.	5	4	3	2	1
6	이웃이 고통을 당하면 내 마음도 아프다.	5	4	3	2	1

## 다. 인구통계학적 정보

### 1. 인적 정보

1-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1-2) 귀하는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            년)

1-3) 귀하는 언제 북한을 마지막으로 떠나셨습니까? (            년            월)

1-4) 귀하는 언제 한국에 들어오셨습니까? (            년            월)

### 2. 입국전 사항

2-1) 북한에서 2010년 이후 가장 오래 살았던 거주지는 어디였습니까?

① 평양 ② 혜산 ③ 청진 ④ 함흥 ⑤ 기타(적어주세요:            )

2-2) 북한에서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① 대학교 ② 전문학교 ③ 중학교 ④ 소학교 ⑤ 무학

2-3) 북한에서 직업은 무엇이셨습니까?

① 노동자 ② 농민 ③ 사무원 ④ 전문가(교원, 의사, 기술자 등)

⑤ 학생 ⑥ 군인 ⑦ 외화벌이일군 ⑧ 장사 ⑨ 가정부인

⑩ 무직 및 기타

2-4)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당원이었습니까?

① 당원 ② 후보당원 ③ 비당원

2-5)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인민반장의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2-6)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식적인 월급(생활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원/(            )년도 화폐기준

2-7)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비공식적으로 벌어들이는 월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북한돈           )원/(           )년도 화폐기준

2-8)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한 살림집에 거주했던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몇 명이었습니까? (           명)

☞ 2-8-1) 같이 거주하는 살림집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당사항 모두 기입)

- ① 배우자   ② 자녀(자녀수를 적어주세요:   명)   ③ 부   ④ 모  
⑤ 손주(손주수를 적어주세요:   명)   ⑥ 기타(적어주세요:           )

2-9)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가정의 생애주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자녀 기준)

- ① 미혼   ② 자녀가 없는 신혼기   ③ 유아 양육기   ④ 유치원 교육기  
⑤ 소학교 교육기   ⑥ 중학교 교육기   ⑦ 대학 교육기  
⑧ 학교 졸업한 자녀 동거기(미혼)   ⑨ 학교 졸업한 자녀 동거기(결혼)  
⑩ 자녀 독립기(결혼 등)   ⑪ 기타(적어주세요:           )

※ ⑪기타(예시) : 이혼 후 독신 등

-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심층면담 질문지]

**북한의 주거환경과 지역공동체 의식 간 관계\_심층면담**

1. 동의서

- 내용 설명 후 동의 서명

2. 인적사항

- 성별, 연령, 탈북 및 입국 시기
- 북한 내 거주지(도시), 거주기간, 살림집 유형, 살림집 점유형태  
(2010년 이후, 가장 오래 거주한 살림집 기준)

3. 심층면접 내용

- 전제 : 공동체의식과 영향요인(개인적 특성,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제도적 환경)에 관한 설문조사의 대상자 중, 성실한 응답자에 한해 면접조사를 실시

(1) 북한 내 거주지역에 대한 일반적 사항

- 살았던 도시(마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동네의 범위와 이웃의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 주택을 매입할 경우, 거주지 이전은 어디까지 가능하나요?(예를 들어, 소구역, 동, 구역, 시, 도 내 까지 가능)
  - 개인의 선택으로, 주택 소구역, 구역을 벗어난 거주지 이전이 가능한지?
- 지난 10년간 북한 내에서 이사를 몇 번 하셨나요?
  - 이사를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 자녀교육, 전기공급, 난방 및 상하수도 설비 등)
  - 이사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학군, 살림집 구조, 봉사시설, 인민반 등)

(2) 북한 내 주거의 봉사시설 및 관련활동

- 공동 가사시설(밥공장, 가족식당 등)을 자주 이용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 가사시설의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인민반 사람들이 순번을 정해 운영하는지?)

- 공동 생산시설(가내작업장, 경공업장 등)에서 근무하셨다면, 일하게 된 계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예를 들면, 근무 희망자에게 신청을 받아 작업장이 정해지는 것인지?)
  - 가내작업장은 직장과 같은 공식적인 활동인가요? 비공식적인 활동(부업)인가요?
  - 식료품공장 등 소구역 내 생산시설의 생산품은 소구역 내에서만 판매되나요?
  - 경영뜰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조경공간인지, 소토지 같은 부업지인지?
- 작업장의 규모(함께 일했던 사람의 수)는 어떠하며, 작업장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 사상·교양시설(선전실, 어머니교양실, 아동교양실)을 이용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용을 하셨나요?
- 체육시설 및 외부공유공간(공원, 체육장 등)을 이용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셨나요?
- 이외에 봉사시설 중에 이웃과 함께 이용한 시설이 있다면 어떤 시설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셨나요?
- 여명거리와 같이 최근 평양에 지어진 아파트에도 공동 가사시설, 공동 생산시설, 사상·교양시설 등이 존재하나요?
- 최근 들어 축소 혹은 없어진 시설, 확대된 시설, 새로 생긴 봉사시설이 있나요? (예를 들면, 오락장, 한증탕, 국제영화관 등)
  - 있다면, 어떻게 이용했나요?(누구와,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며)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나요?(달러, 비용마련 방법)
- 거주하지 않는 소구역에 들어가서 봉사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남한의 공동주택에도 있었으면 하는 시설이 있나요?

※ 참고(봉사시설) :

- . 공동 가사시설(밥공장, 가족식당, 전문식당, 부식물 매대, 세탁물 취급소)
- . 공동 생산시설(가내작업장, 경공업장, 식료품공장, 지방산업공장)
- . 사상·교양시설(선전실, 신문도서열람실, 어머니교양실, 아동교양실)
- . 교육·문화시설(탁아소, 유치원, 소학교, 도서관, 영화관, 문화회관, 아동회관)
- . 상업·업무시설(식량공급소, 연료공급소, 식료품상점, 공업품상점, 저금소, 약방, 종합진료소, 목욕탕, 이발관, 고품수매소, 종합편의수리소, 건물관리소, 동사무소)
- . 체육시설 및 외부공유공간(어린이놀이터, 노인휴식장, 공원, 체육장, 운동장, 공동녹지, 경영뜰)

### (3) 이웃과의 상호작용

- 주거지를 기반으로 하는 공식적 조직·활동, 비공식적 조직·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 자발적인(비공식적인) 친목모임이나 봉사활동이 있는지? (예를 들어, 동호회, 자원봉사단 등)
  - 비공식적 조직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셨나요?
- 비공식적인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을 통해 이웃과 친해졌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 비공식적 모임을 위한 사적 공간이 있나요? (예를 들어, 집 빌리기 등)
- 인민반 활동을 통해 이웃과 친해졌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하셨는지 경험을 들려주세요.
- 공식적 조직(인민반)에 대한 생각은 어떠하셨나요?(친근함? 나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조직? 마을과 거리 꾸리기, 국가건설 동원 등으로 인한 부담감?)

### (4) 공동체의식

- ‘공동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 북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공동체는 개인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생님께서는 공동체적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한에서 주거환경이 공동체의식을 키우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요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한에서도 공동체적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 추가사항

- 북한 내 학력, 직업, 소득수준

## 4. 마무리

-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면 일주일 내로 사례비 지급예정
- 서면 요청하게 되면 답변 부탁